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에 관한 연구 :

영어 학습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Étude sur l'acquisition du français comme L3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임 영 순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에 관한 연구 : 영어 학습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Étude sur l'acquisition du français comme L3

지도교수 심 봉 섭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임 영 순

임영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장 승 일 (인)

부 위 원 장 김 진 하 (인)

위 원 심 봉 섭 (인)

국문초록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에 관한 연구 : 영어 학습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교류와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중 언어 현상(plurilinguisme)이 일상화되고 이를 언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학습자들은 모국어 이외에 여러 개의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제3언어(L3)란 시간적으로 세 번째 배우는 언어 혹은 모국어와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학습한 이후 현재 배우고 있는 언어를 지칭한다. 최근의 외국어 교수·학습 분야의 많은 경험 연구들은 제3언어 습득이 제2언어 습득과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모국어와 하나의 외국어 사이의 전이(transfert) 관계만을 고려한 제2언어 습득과 달리 제3언어 습득에는 모국어(L1) 이외에 이미 학습한 또 다른 언어(L2)가 함께 개입하면서 L1, L2, L3의 세 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차 언어 영향'(influence translinguistique)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L1과 L2는 학습자의 이전 학습 경험, 인지 능력, 언어 능력, 학습 상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언어 습득에서 바탕언어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다양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언어들 사이의 유형학적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학습한 후 프랑스어를 배우는 다중 언어 학습자이며 프랑스어는 이들의 제3언어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제3언어로서 프랑스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제2언어인 영어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의 효과적인 프랑스어 수업 설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지표의 분석과 주관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언어학적 유사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어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학습방법을 프랑스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프랑스어 수업에서 영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수업이 프랑스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어 수업과 한국어 수업은 지표상으로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어가 프랑스어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며 프랑스어로 쓰고 말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의식하고 있었다. 앞으로 프랑스어 수업을 설계할 때 영어와의 유추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프랑스어와 영어의 언어적 유사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훈련한다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프랑스어를 교수·학습하여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 매우 유용하고 경제적인 수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다중 언어
제3언어 습득
바탕언어
전이
교차 언어 영향
학습 전략

목 차

국문초록 i

1. 서론 1

2. 제3언어 습득 5

2.1. 제3언어의 정의 6

2.2. 제3언어 습득과 교차 언어 영향 7

2.3.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역할 13

2.4. 제3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8

1) 언어의 유형(la typologie) 18

2) L2로서의 지위(le statut en tant que L2) 21

3) 능력(la compétence) 22

4) 최근성(l'actualité) 24

3. 한국학생의 프랑스어 습득에 있어서 영어 학습의 영향 26

3.1. 조사 대상 및 목표 ····· 27
3.2. 조사 방법 및 절차 ····· 28
3.3. 조사 결과 및 분석 ····· 34
3.3.1. 언어 학습 순서와 기간 ····· 34
1) 언어 학습 순서 ····· 34
2) 언어 학습 기간 ····· 36
3.3.2. 성적 분석 ····· 37
3.3.2.1. 내신 성적 분석 ····· 37
1)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 ····· 37
2) 프랑스어 성적과 국어, 수학 성적 ····· 40
3.3.2.2. 공인 언어 성적 분석 ····· 52
3.3.3. 설문 분석 ····· 59
3.3.3.1.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상관관계 ····· 60
1) 프랑스어 학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 60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시기 ····· 61
3)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영역 ····· 62
4)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이유 ····· 64
5) 영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프랑스어 수업 ····· 72
6) 소결 ····· 75
3.3.3.2.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상관관계 ····· 75
1) 프랑스어 학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 76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시기 ····· 77
3)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영역 ····· 78
4)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이유 ····· 80
5) 한국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프랑스어 수업 ····· 84
6) 소결 ····· 86
3.3.3.3. 설문 조사 분석 정리 ····· 87

4.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수업 방안 91

4.1. 프랑스어와 영어의 연관성을 고려한 수업 91
1) 어휘 91
2) 문법 96
4.2.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을 고려한 수업 99
1) 메타언어 99
2) 문화 101
3) 어휘 103

5. 결론 106

Bibliographie 111

【부록 1】 영어와 관련된 프랑스어 어휘 목록 119

【부록2】 설문지 123

Résumé 129

<표 목차>

<표 1>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설문 ····· 31
<표 2>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설문 ····· 33
<표 3> 프랑스어 이외의 제2외국어를 학습한 학생의 언어학습 현황 ····· 35
<표 4> 내신 등급 체계 ····· 37
<표 5> 프랑스어와 영어의 등급 간 격차 ····· 38
<표 6> 프랑스어 기준 영어의 등급 평균 ····· 39
<표 7>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 등급 ····· 41
<표 8> 프랑스어 등급 기준 과목별 평균 등급 ····· 45
<표 9> 영어 공인 어학 자격증 소지 현황 ····· 52
<표 10> 프랑스어 공인 어학 자격증 소지 현황 ····· 53
<표 11> 자격증 소지자의 내신 평균 등급 ····· 55
<표 12> Teps 등급과 영어 내신 등급 평균 ····· 56
<표 13> Delf 등급과 프랑스어 내신 등급 평균 ····· 56
<표 14> Delf 등급에 따른 Teps 점수 평균 ····· 57
<표 15> 이전 언어 학습 경험이 다른 학생들의 성적 비교 ····· 58
<표 16> L3 프랑스어 학습의 배경언어 역할에 개입하는 요소 ····· 60
<표 17>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가 도움이 된 시기 ····· 62
<표 18> 영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 64
<표 19> 14번 세부 문항 긍정적 응답률 ····· 65
<표 20> 프랑스어와 영어의 문법과 어휘가 유사한 내용 ····· 70
<표 21> 프랑스어와 영어의 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 ····· 71
<표 22> 영어와 관련한 프랑스어 수업의 빈도와 효용성의 관계 · 74
<표 23>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가 도움이 된 시기 ····· 77
<표 24>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의 영향과 시기 ····· 78

<표 25>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되는 이유 ····· 80
<표 26> 한국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 81
<표 27> 20번 세부 문항 긍정적 응답률 ····· 82
<표 28> 한국어와 관련한 프랑스어 수업의 빈도와 효용성의 관계 ·
····· 86
<표 29> 어휘 목록 중 영어와 관련된 어휘의 수 ····· 93
<표 30> 프랑스어와 영어의 유사한 문법 사항 ····· 97
<표 31> 한국어 일상생활 속의 프랑스어 어휘 ····· 103

<그림 목차>

<그림 1> 프랑스어와 다른 과목의 평균 등급 ····· 43
<그림 2> 과목별 등급 차이별 인원 (1) ····· 43
<그림 3> 과목별 등급 차이별 인원 (2) ····· 44
<그림 4> 프랑스어 기준 영어 평균 등급 ····· 47
<그림 5> 프랑스어 기준 국어 평균 등급 ····· 48
<그림 6> 프랑스어 기준 수학 평균 등급 ····· 49
<그림 7> Teps 등급별 현황 ····· 54
<그림 8> Delf 등급별 현황 ····· 55
<그림 9> 프랑스어 학습에 대한 영어 학습의 영향 ····· 61
<그림 10>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된 영역 ····· 63
<그림 11> 14-1번 문항 응답률 ····· 66
<그림 12> 14-2번 문항 응답률 ····· 67
<그림 13> 14-3번 문항 응답률 ····· 68
<그림 14> 영어와 관련한 프랑스어 수업 경험의 유·무 ····· 72
<그림 15> 영어 활용 수업의 효용성 ····· 73
<그림 16> 프랑스어 학습에 대한 한국어 학습의 영향 ····· 76
<그림 17>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된 영역 ····· 79
<그림 18> 20-1번 문항 응답률 ····· 83
<그림 19> 20-2번 문항 응답률 ····· 83
<그림 20> 20-3번 문항 응답률 ····· 83
<그림 21> 한국어 활용 프랑스어 수업 경험 ····· 85
<그림 22> 한국어 활용 수업의 효용성 ····· 85
<그림 23>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영역(영어와 한국어) ····· 89
<그림 24> 영어와 관련된 프랑스어 어휘의 교과서 예시 ····· 95
<그림 25> 교과서의 바칼로레아에 대한 활동 ····· 102
<그림 26>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 생활 속의 프랑스어 ····· 104

1. 서론

현대 사회는 하나의 언어 공동체 안에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다언어(multilingual) 사회이다. 교통이 발달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국어가 아닌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매체의 폭넓은 보급은 외국어와의 접촉을 보다 용이하게 하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은 외국어 교육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영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제2외국어를 학교 교육에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중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던 영어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고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던 제2외국어도 중학교에서부터 선택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확산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제도권의 외국어 교육을 제2외국어에 국한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1995년에 전체 학생 중 93.4%에 이르던 제2외국어 선택 학생 수가 2013년에는 전체의 31.1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1] 이 가운데 프랑스어를 선택한 학생의 수는 다른 외국어에 비해 더욱 뚜렷한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감소의 원인으로는 제2외국어의 입시에서의 비중 감소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한문 교양>과 함께 <생활 교양군>에 선택과목으로 편성된 사실을 들 수 있다.

감소세를 보였는데 1995년에 제2외국어를 선택한 전체 학생 중 25.11%의 학생이 선택하였던 프랑스어는 2012년에는 불과 2.82%의 학생만이 선택하였다.[2] 또한, 프랑스어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어 Ⅱ'는 선택과목이 되면서 단위시수가 줄어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실제로는 '프랑스어 Ⅰ'을 1년간 주당 3시간 정도 배우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프랑스어 교사는 밖으로는 보다 많은 학교에서 프랑스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안으로는 교실에서 짧은 시간에 프랑스어를 경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교실에 적합한 효율적인 프랑스어 수업 모델을 찾기 위하여 교사는 먼저 학습자인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영어를 학습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다중 언어 학습자인데 최근 이 다중 언어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논의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와 하나의 외국어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외국어가 학습자의 제1외국어인지 혹은 제2외국어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3에는 제2외국어 교육 현황 통계를 산출하지 않음. 같은 기간 독일어는 42.39%→2.26%, 스페인어는 0.87%→0.96%, 중국어는 4.95%→33.33%, 일본어는 26.68%→60.10%, 러시아어는 0.00%→0.09%로 변화하였다.

3)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상 영어는 10년을 배우게 되며 정규 수업시간과 보충수업 등을 합하면 교육시간이 프랑스어의 10배 이상이 된다.

‘외국어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연구되면서 다중 언어 교육은 이중 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 교육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다중 언어 학습자와 그들의 언어 학습 과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다중 언어 학습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언어학적으로 이중 언어 학습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언어 학습과는 다른 관점과 방법론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도 이와 같은 다중 언어 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는 외국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어휘 면에서나 문법 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공유한 언어들이다. 만약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영어 학습의 지식과 경험을 프랑스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4] 이 점에 착안하여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향후의 효과적인 프랑스어 수업 설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의 특성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 조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제3언어 습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제3언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을 왜 구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제2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볼 것인데 이는 한국에서의 프랑스어 수업을 제3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하는 이론

4)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유말희(2006): 「프랑스어교육을 위한 영어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vol. 21; Kim, Jong-Myung(2006): ‘Apprentissage du français à l’aide de l’anglais’, 『프랑스문화연구』, vol. 13 등이 있다.

적 근거가 되어 줄 것이다(2장).

둘째, 실제로 한국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 성과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조사, 검증 및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객관적 지표로서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학교 내신 성적과 두 언어의 공인 어학 능력 시험 성적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내신 성적은 두 번의 지필고사와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의 결과가 합산된 성적으로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또한 내신 성적의 경우에는 두 언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과목의 성적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 학습 간의 상관관계가 언어학습에 고유한 특성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학습능력의 문제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한편 공인 어학 능력 시험은 출제자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신 시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측정할 수 있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3장).

셋째, 프랑스어와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 즉 학생들의 주관적 의식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주관적 평가는 설문 조사를 통해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영어 학습의 효율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두 언어 학습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방식을 택할 것인데 이는 실제로 영어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프랑스어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3장).

넷째, 객관적 지표에 대한 분석과 주관적 의식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얻은 분석 결과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실제 프랑스어 교재의 내용에 비추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프랑스어 수업 설계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4장).

2. 제3언어 습득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중 언어(plurilinguisme) 현상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언어의 국경이 점점 희미해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모국어 이외에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에 다중 언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유럽의 경우, 영어가 여전히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3년 유럽연합이 창설된 이후 회원국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위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게 회원국들의 여러 언어를 학교 수업에 포함하거나 교수 언어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그동안 주로 이중 언어 학습과 제2외국어 교육에 머물러 있던 외국어 교수·학습 관련 연구들은 차차 관심 영역을 다중 언어 학습으로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도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공통으로 학습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다중 언어 교육 체제를 따르고 있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인 한국어 이외에 최소한 두 개 이상(영어, 프랑스어)의 외국어를 학습하는 다중 언어 학습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과정은 이중 언어 학습보다는 다중 언어 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어 학습과정을 다중 언어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프랑스어 학습과정을 프랑스어와 그 이전에 학습한 모든 언어가 맺게

되는 관계에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제3언어의 정의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는 대체적으로 한국어-영어-프랑스어의 순으로 언어를 배우게 된다. 프랑스어는 외국어로서는 두 번째 배우는 언어이며 전체 언어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배우는 언어가 되는데 이를 언어학에서 흔히 '제3언어', 'L3', 'troisième langue', 'third language'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제3언어'라는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언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3언어에 대한 정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언어를 배우는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학습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를 제1언어(L1), 그 다음 배우는 언어를 제2언어(L2), 그 다음을 제3언어(L3)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점만을 문제 삼은 것으로 각 언어의 구사 능력이나 배운 기간, 현재 배우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 정의를 따르자면 차후에 배우는 언어를 제4언어(L4), 제5언어(L5)로 순서에 따라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모국어를 제1언어로, 현재 배우고 있는 언어(목표 언어, langue cible, target language)를 제3언어로 지칭하고 제1언어와 제3언어 사이에 학습한 모든 언어를 제2언어로 지칭하는 것이다(Williams & Hammarberg 1998:301).[5] 이

5) 《 In accordance with the literature, we use the term L3 to refer the

때 제2언어는 개인에 따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중국어, 스페인어를 배우고 난 후 현재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제1언어는 한국어, 제2언어는 중국어와 스페인어, 제3언어는 프랑스어가 되는 것이다.

'제3언어'를 어떻게 정의하건 '제3언어'라는 용어 자체는 모국어와 현재 배우고 있는 외국어 사이에 또 다른 외국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3언어 습득[6]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L3 습득 과정에서의 바로 이 L2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L2의 정의에 따라 연구의 대상과 결과가 달라질 것이 자명하므로 '제3언어'의 정의는 연구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제3언어 관련 연구 논문들은 L2가 하나일 때는 특별한 언급 없이 L1, L2, L3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L2가 여러 개일 때는 대체적으로 Williams & Hammarberg의 정의를 명시하면서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2. 제3언어 습득과 교차 언어 영향

제3언어 습득은 제2언어 습득만큼 많이 연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랫동안 제3언어 학습(다중 언어 학습)은 종종 제2언어 학습

---

language that the learner is currently acquiring (corresponding to the language under study), L1 to refer to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and L2 to refer to any other previously learned non-native languages.》

따라서, 현재 배우고 있는 언어가 첫 번째 외국어인 경우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구분으로 충분하므로 따로 제3언어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

6) 오늘날 '습득'과 '학습'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습득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이중 언어 학습)의 단순한 변이형으로 간주되고 이중 언어 학습은 언어 학습의 유형이나 학습자가 알고 있는 다른 외국어의 숫자와 상관없이 제1언어와 다른 모든 언어 학습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Smith 1994:7). 하지만 제3언어 습득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여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그 언어들이 학습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3언어 습득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제3언어 습득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제3언어 습득을 제2언어 습득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단지 또 하나의 외국어를 추가해서 배우는 것으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제2언어 습득과는 다른 고유한 성격과 과정을 갖는 것으로 보고 이의 해석을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 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제3언어 습득은 제2언어 습득과 구별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제3언어 습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언어 습득 상황은 모국어만 사용하는 단일어 상황과도 다르고 모국어와 하나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상황과도 다르다. 무엇보다 제3언어 습득 상황에는 여러 개의 언어들이 사용되는데 이 언어들 간의 능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맺게 되는 언어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제3언어 습득 상황이 제2언어 습득상황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은 각각의 습득 상황에서 관계되는 언어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언어에 도움을 청하게 된다. 제2언어 습득자는 이 과정에서 오직 자신의 모국어 학습 경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제3언어 학습자는 모국어와 함께 이미 습득한 다른 외국어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두 언어 학습 상

황의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 제2언어 습득에 관여하는 언어 체계는 L1과 L2 두 개의 언어 체계인데 그 동안의 L2 습득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L1→L2로의 영향, 즉, 전이(transfert)였다. 전이는 언어학적인 근접성에 따라 언어학습 과정을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긍정적 전이와 두 언어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간섭의 결과로 학습과정을 방해하는 부정적 전이로 나눌 수 있다(Beltran 2006:30). L2 습득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의 전이 중 L1의 간섭, 즉 부정적 전이를 주로 다루었다. L1이 L2 학습을 방해하고 오류[7]의 원천이 된다고 판단하여 L1의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L3 습득에는 L1 이외에 L2가 개입하게 된다. L3 학습자는 이미 학습한 L1과 L2, 두 개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3 습득에 있어서는 L1→L3와 L2→L3라는 두 방향의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L3 습득을 L2 습득의 방법론과 틀로 이해한다면 이는 L3 발화와 생산에 있어서 바탕언어(langue de base, langue source, background language)로 오로지 L1만을 고려하여 L1→L3 전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L2 습득 과정과 이 과정의 산물들은 L3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3 습득은 L2 습득의 모든 과정과 더불어 각 언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보다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변수가 더 많아 L2 습득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enoz *et al.* (2001:1)은 L2 습득과 L3 습득에 여러 언어체계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Kellerman(2001:2)은 이러한 상호 영향이 하나의 방향이

7) 하지만, Galisson(1980:57)은 오류는 예방해야 할 잘못(faute)이 아니라 실수(erreur)로서 학습의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이며 학습자가 언어체계에 대해 세운 가설을 확인하도록 해 주는 훌륭한 교육적 절차를 이룬다고 정의한다.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L2 학습자는 L1↔L2, L3 학습자는 L1↔L3, L2↔L3처럼 양방향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언어체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2 습득에 있어서도 L1의 부정적 전이만이 아니라 긍정적 전이도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교차 언어 영향'(Influence translinguistique, Cross-linguistic Influence)이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 Smith(1994:198)는 '교차 언어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학습자의 주어진 목표어 수행 및(또는) 그 발전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 확장한다면, **그 목표어에 미치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모든 '다른 언어'의 영향을 의미한다.**"[8](강조는 원문 표기)

'교차 언어 영향'은 이전의 '전이', '간섭', '회피', '차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2언어 습득과 제3언어 습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제3언어 습득에서는 목표어 능력뿐 아니라 다른 두 언어(L1과 L2) 능력 또한 중요한 전이의 요소가 되는데 이 다언어 능력은 단순히 단일어 능력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제3언어 습득에 있어서 교차 언어적 관계를 밝히는 것은 언어가 중첩될수록 복잡해지는 이러한 언어 습득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Dewaele(1998:485)은 프랑스어를 L2로 배우는 네덜란드 학습자와 L3로 배우는 네덜란드 학습자의 프랑스어의 어휘 전이를 비교하였는데 전체 어휘 전이 가운데 절반인 218개의 어휘에서 교차 영향을

8) "… the influence of the mother tongue on the learner's performance in and/or development of a given target language; by extension, it also *means the influence of any 'other tongue' known to the learner on that target language*."(이탤릭체는 원문 표기)

발견할 수 있었다.[9] 이 때 프랑스어를 L2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L1인 네덜란드어로부터 어휘를 전이시키는 비율이 L3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L2인 영어로부터 어휘를 전이시키는 비율보다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0] 이는 L2 습득 과정보다는 L3 습득 과정에서 교차 언어 영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L2 프랑스어 생산에서는 L1 네덜란드어가, L3 프랑스어 생산에서는 L2 영어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어와 영어는 게르만어로서 같은 어군에 속하지만 프랑스어는 로만어로서 다른 어군에 속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어를 발화할 때 영어와 네덜란드어 양쪽에서 어휘를 끌어오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L2인 영어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L3 습득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성화되는 언어가 단지 L1만이 아니라 L2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Cenoz(2001:14-15)는 L1이 바스크어, L1이 스페인어, L1이 바스크어와 스페인어 이중 언어인 세 집단의 학습자들이 L3 영어를 발화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바탕언어로 바스크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집단은 L1이 바스크어인 그룹이 아니라 L2가 바스크어인 집단이었다. 이는 제3언어 학습에 L1과 함께 L2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3언어 습득에서 각 언어 사이에 교차 언어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

9) 목표어를 습득할 때 형태적-음성학적으로 목표어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원어민 화자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소들이 나타나는데 교차 영향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어휘소들을 Dewaele(1998:471)은 'lexical invention'이라 부른다.
《… lexemes … which are morpho-phonologically adapted to the target language but are never used by native speakers. In this study these non-target lexemes are called 'lexical inventions'》

10) L2 학습자의 L1으로부터의 전이(15.3%), L3학습자의 L2로부터의 전이(21.8%)(Dewaele 1998:486).

이러한 교차 언어 현상은 어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통사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lyn, Foley & Vinnitskaya(2004)는 L1이 카자흐스탄어, L2가 러시아어, L3가 영어인 사람이 영어의 제한적인 관계절을 이해하고 생산하는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L1 일본어/ L2 영어인 집단과 L1 스페인어/ L2 영어인 집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두 집단의 영어 수준은 차이가 없다). 영어의 관계절을 만드는 방식은 (1)처럼 head-initial, right-branching[11] 방식으로 (2)의 스페인어와 유사하고 head-final, left-branching 방식을 취하는 (3)의 일본어와는 다르다.

(1) John read the book that Mary wrote.
(2) Juan leyó [e] libro que María escribió.
(3) John-wa Mary-ga kaita hon-o yonda.

(Flyn, Foley & Vinnitskaya 2004:7)

카자흐스탄어는 일본어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절을 만든다. 만약 L3 습득에서 L1이 우월적인 역할을 한다면 L1 카자흐스탄 학습자의 결과는 L1일본어/ L2영어인 학습자의 결과와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L1 스페인어/ L2 영어 학습자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모국어 이후의 언어습득에 있어서 L1이 항상 우세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영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계절을 구성하는 자신

11) 구(syntagm)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head라고 하고(예를 들면, 명사구에서는 명사, 동사구에서는 동사) head가 의미상으로 완결되기에 꼭 필요한 요소를 complement라고 하는데 head가 complement보다 앞에 오는 경우를 head-initial, right-branching이라고 하고, head가 complement보다 뒤에 오는 경우를 head-final, left-branching이라고 한다.

의 L2인 러시아어였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Flyn, Foley & Vinnitskaya(2004:5)는 이전의 어떠한 언어 경험도 이후의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umulative Enhancement Model(CEM)을 제시하였다. 즉, 언어습득은 누가적이며 이전에 습득한 모든 언어지식이 L3 습득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L3 생산에 있어서 L2가 바탕언어가 되는 것, 다시 말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부터 또 다른 외국어로 전이되는 현상은 제3언어 습득이 제2언어 습득과 구분되는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전이를 De Angelis & Selinker은 중간언어 전이(Interlanguage transfer)라 불렀다.[12] 이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중간언어 전이가 발생할 때 발화자의 머리속에 있는 모든 언어 체계가 동시에 상호 영향을 미치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간언어 전이 현상은 모국어체계와 비모국어체계라는 두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며 제3언어 습득을 제2언어 습득과 다른 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2.3.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역할

L3 습득에 있어서 L1뿐만 아니라 L2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차 언어 영향'을 확인하게 된 학자들은 L1과 L2가 사용되는 상황과 학습자가 L1과 L2에 도움을 청하는 방식이 상호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Williams & Hammarberg(1998)는 L1이 영어이고 L2가 독일어인

12) 《As a preliminary, the influence of a non-native language on another non-native language-i.e. the documented transfer from one interlanguage to another-is here referred to as *interlanguage transfer*.》(De Angelis & Selinker 2001:43).

학습자가 L3로 스웨덴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2년여에 걸쳐 관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L3 스웨덴어로 조정되지 않은 844개의 어휘를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L1인 영어 혹은 L2인 독일어로 부호 전환(changements de code non adaptés)된 것이거나 L3 스웨덴어로 전이(transfert)된 것이었다.[13]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은 L3 습득에 L1과 L2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L1과 L2가 하는 역할은 각각 다르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L3습득 과정에서 L1인 영어는 어휘 구조를 만드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L3와 분리되어 주로 메타언어적인 형태로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해 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L2인 독일어는 비모국어로서 L3로 어휘구조를 만드는데 주로 활성화되었다. 이 때, L1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도구적인 역할(un rôle instrumental), L2가 담당하였던 역할을 공급자 역할(un rôle de fournisseur)로 정의하였다(Williams & Hammarberg 1998:295). 도구적 역할이란 의사소통 상황을 관리하고 설명하고 번역하고 논평하는 역할 즉, 담화를 생산하고 조절하는 메타언어적인 역할을 말하며, 공급자 역할이란 L3 발화 생산의 언어적 재료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말한다. 도구적 역할이 전략적이고 의식적인 부호 전환이라고 한다면 공급자 역할은 의사소통의 목적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L2 습득에서는 L1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되고 L3 습득에서는 학습자의 L3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이 두 가지 역할은 점차적으로 L3가 스스로 충족하게 되어 단일어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학

13) 부호 전환(changements de code non adaptés)은 les expressions propres à d'autres langues tel qu'un mot ou une séquence courte, qui ne sont adaptées ni phonologiquement ni morphologiquement à la langue cible을 의미하며 전이(transfert)는 les expressions … qui s'avéraient phonologiquement ou morphologiquement adaptées à la langue cible'를 의미한다(Hammarberg 2006:4).

습자의 L1인 영어가 도구적 역할을 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구적 역할을 하는 언어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화 상대자의 언어 지식에 대한 정보가 바탕언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도구적 역할은 발화자와 대화 상대자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언어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영어가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이유가 실험자의 L1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접근 가능한 언어였기 때문인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 Hammarberg는 L1이 독일어이고 L2가 영어인 학습자로 바꾸어 L3 스웨덴어 습득 과정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도구적 역할은 영어가, 공급자 역할은 독일어가 담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ammarberg 2006:15). 하지만 이 경우 도구적 역할은 학습자의 L2가, 공급자 역할은 학습자의 L1이 담당한 것으로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L3 습득과정에서 L1과 L2가 하는 역할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L1과 L2의 언어형태, 학습자의 현재 상황, 학습자의 이전의 언어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Hammarberg(2006)가 도구적 역할은 L1뿐만 아니라 L2도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Trévisiol(2006)은 공급자 역할 역시 L2뿐만 아니라 L1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révisiol은 L1이 일본어, L2가 영어인 학습자가 프랑스어를 L3로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어휘와 명사구의 전이현상을 연구하였다. 언어간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어휘영역의 전이에서 당연히 L2인 영어가 활성화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L2에서 빌려 쓰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특별한 경우 코드 전환이 L2뿐 아니라 L1으로도 실행된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이는 특히,

kappulu(couple), *chansu(*chance), *têburu*(table)처럼 영어에서 차용된 일본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L1의 영향은 통사 차원에서, 특히 두 낱말로 이루어진 특정한 명사구를 구성할 때의 어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L3 표현인 'voiture de police'를 'policeman voiture'로 생산하였는데 이는 L2의 'police car'와 L1의 'patokaa=patrol car'의 구조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Williams & Hammarberg(1998:295)가 제안한 공급자 역할이 L2뿐만 아니라 L1에 의해서도 수행된다는 것이다. Trévisiol은 결론적으로 전이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L1과 L2에 의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학습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Ringbom(2001)은 L3습득에 있어서 L1, L2의 역할은 언어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이의 유형과 목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어휘의 전이에 주목하여 L3로 영어를 배우는 스웨덴 언어학교의 학생들과 핀란드의 언어학교 학생들의 영어 단어 번역을 분석하였다. 어휘 전이를 다시 형태상의 유사성에 기초한 형태 전이와 차용어의 사용 혹은 의미적인 확장에 기초한 의미 전이를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각각의 전이 과정에서 L1과 L2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L2와 L3가 동족관계에 있는 어휘를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L3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L3 생산에 L2의 낱말들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형태의 전이에서는 L2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맥락에 대한 이해와 보다 인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의미의 전이에서는 L1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L3 습득에 있어서 L1, L2의 역할은 전이의 유형과 목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Lindqvist(2009)는 L1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로 다양하고 L2가 영어, 독일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아일랜드어로 역시 다양한 학

습자들이 L3인 프랑스어를 말하는 과정에 있어 전이 현상을 관찰 연구하였다. L3 발화에 나타난 이들의 부호 전환과 단어 생산[14]을 관찰한 결과, 스웨덴어가 가능한 모든 학습자에게 Williams & Hammarberg(1998:295)가 제안한 도구적 역할을 담당한 언어는 스웨덴어였다. 도구적 역할의 언어로 스웨덴어가 선택된 것은 이 언어들에 대해 대화자들의 접근이 공통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때, 스웨덴어는 학습자의 L1 혹은 L2였다. L2 아일랜드어 학습자에게 도구적 언어는 L1영어였다. 이 경우 역시 대화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가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공급자 역할의 언어에 대해서는 도구적 언어만큼 분명하지 않았다. L1이 스웨덴어이고 L2가 독일어, 영어인 학습자는 공급언어로 L2인 영어를 선택하였고, L1이 스페인어이고 L2가 영어, 스웨덴어인 학습자는 L1인 스페인어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에는 언어 간의 형태적인 유사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외에도 L2나 L3의 언어 능력도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3생산에 있어서 L1과 L2의 역할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언어의 형태나 개인의 능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Lindqvist 2009:294).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L3 습득에는 L2 습득과 달리 L1 뿐 아니라 L2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상호 언어적 영향 때문에 L3 습득은 L2 습득과 다른 고유한 특성과 과정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L3 습득에 있어서 L1과 L2는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각각의 언어가 담당한 역할은 L1과 L2의 언어형태, 학

14) Lindqvist(2009)의 '부호 전환'과 '단어 생산'은 각각 주13)의 Hammarberg(2006)의 'changements de code non adaptés'와 'transfert'에 해당한다.

습자의 현재 상황, 학습자의 이전의 언어 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L2 습득과는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하여야하며 제3언어 습득 연구는 제3언어 학습자가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제3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언어 학습자가 L3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L3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L1 혹은 L2로부터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학습자는 언어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바탕언어를 선택하게 된다(Singleton & Ó Laoire 2006:2). 그렇다면 바탕언어로 L1을 선호할지 L2를 선호할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Williams & Hammarberg(1998:322)는 바탕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네 가지 요인으로 언어의 유형(언어 사이의 거리), 모국어가 아닌 언어의 지위(L2로서의 지위), 학습자의 능력, 언어의 최근의 사용(최근성)을 들고 있다. 이들은 제3언어 습득 과정에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게 되며 이 조건들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언어가 공급언어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언어의 유형(la typologie)

일반적으로 바탕언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언어 간의 거리, 언어 유형이다. 학습자는 목표어(langue cible)와 형태적으로 가까운 언어 혹은 가깝다고 인식하는 언어[15]로부터 더 많이 빌려오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모국어가 인도-유럽어가 아닌 학습자가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울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다른 인도-유럽어로부터 어휘와 구조를 전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L2의 영향은 특히, L2가 L3와 형태적으로 밀접하고 L3와 L1이 거리가 있을 때 강하게 나타난다.

Cenoz(2001)의 실험연구에서 학습자들의 L1인 바스크어는 비 인도-유럽어이고 스페인어는 로만어이며 영어는 게르만어로서 스페인어는 바스크어보다는 영어와 형태적으로 가까운 언어이다. L1에 상관없이 학습자들에게 바탕언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스페인어였는데 이는 영어와 스페인어의 언어적 거리가 교차 언어 영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탕언어를 기준으로 이들의 어휘 전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L1이 바스크인 학습자는 L1이 스페인어인 학습자보다 더 많이 스페인어로부터 전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이들에게 스페인어가 바탕언어로 선택된 것은 스페인어가 바스크어보다는 영어와 형태적으로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L1이 스페인어인 학습자는 L1이 바스크어인 학습자보다 더 많은 어휘를 바스크어로부터 전이하였다.[17] 이는 바스크어가 이들에게 L2로서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여전히 주된 바탕언어는 스페인어였는데 이는 언어 간의 형태적인 유사성이 교차 언어 영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15) 이를 Kellerman은 'psychotypologie'라 불렀다.
16) 스페인어로부터 전이한 비율은 L1이 스페인어인 학습자는 45%였고 L1이 바스크어인 학습자는 64%였다(Cenoz 2001:15).
17) 바스크어로부터 전이한 비율은 L1이 스페인어인 학습자는 27%, L1이 바스크어인 학습자는 12%였다(Cenoz 2001:15).

을 말하는 것이다.

Lindqvist(2009)는 L1이 스페인어인 학습자가 L3 프랑스 습득과정에서 공급언어로 L2인 영어나 스웨덴어 대신 자신의 L1인 스페인어를 선택한 것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의 유형적 거리가 다른 언어들과의 거리보다 가까웠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Dewaele(1998)는 L3 프랑스어 학습자가 프랑스어 발화에 자신의 L1인 네덜란드어보다 L2인 영어를 더 많이 활용한 것은 프랑스어와 영어가 같은 인도-유럽어로서 어휘적, 구조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언어 간의 형태적인 유사성은 어휘에서뿐 아니라 통사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연구되었다. Bardel(2006)은 L1이 스웨덴어인 학습자가 L3 이탈리아어의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떤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L2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인 집단으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 L2가 스페인어인 집단에서 긍정적 전이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탈리아어는 부정의 표현을 동사 앞에 위치시키는 (pre-verbal) 언어인데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는 언어는 위의 L2 언어들 중 스페인어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Singleton & Ó Laoire(2006)는 학습자가 언어 간의 거리에 대해 느끼는 유사성 'psychotypologie'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L1이 영어, L2가 아일랜드어, L3가 프랑스어인 학습자가 L3의 반어의와 동의어를 찾는 실험 연구에서 학습자가 "expensif (expensive) cher", "despisé (despise) détesté"처럼 L2인 아일랜드어에서보다 L1인 영어에서 더 많은 어휘를 전이시킨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영어는 게르만어이고 아일랜드어는 켈트어, 프랑스어는 로만어인데 영어와 프랑스어는 라틴어로부터 직접 파생된 어휘가 많고 또한 11세기 노르만의 영국 점령 이후 프랑스어 어휘가 영어에 많이 유입됨으로써 많은 어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결과는 학습자들이 L3 프랑스어가 L2 아일랜드어보다 L1 영어와 형태적으로 더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바탕언어의 선택에 있어서 언어의 형태적인 유사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L3 습득에서 바탕언어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그 언어가 L1인지 혹은 L2인지가 아니라 어휘적인 측면에서나 통사적인 측면에서 목표 언어와 바탕언어 간의 언어적 유사성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2) L2로서의 지위(le statut en tant que L2)

학습자는 본인이 학습하고 있는 L3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바탕언어를 선택할 때 언어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국어인 L1보다는 외국어인 L2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De Angelis & Selinker(2001:56)는 문화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는 외국어를 발음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국어를 발음하는 것처럼 들려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모국어와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화자가 외국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대화자에게 인식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L3가 L2보다는 L1과 언어학적으로 더 유사한 상황에서도 학습자가 바탕언어로 L1보다 L2를 선호한 것은 L2가 외국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8] 이러한 L2로서의 지위는 L3 학습의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지만 학습이 진행되어 L3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Williams & Hammaberg(1998)의 연구에서 학습자가 바탕언어로

18) 중간언어 전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이러한 잠재적 인지적 모드를 'talk foreign', 'foreign language mode'라고 부른다.

L2인 독일어를 선택한 것은 L3인 스웨덴어가 자신의 L1인 영어보다 유형학적으로 독일어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어는 어휘 구성에서는 독일어와 가깝지만 음성학적인 배열과 같은 다른 부분에서는 L1인 영어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스웨덴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여전히 스웨덴어를 독일어처럼 발음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L1과 L2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이 현재 배우고 있는 스웨덴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보다는 외국어인 독일어를 바탕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Hammarberg는 학습자가 바탕언어로 이렇게 외국어인 L2를 선호하는 이유로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은 다른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언어를 습득할 때는 L2가 활성화된다는 점과 학습자 스스로 모국어를 억제하고 L3 습득 전략으로 L2에 더 의존하려고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19]

3) 능력(compétence)

L2 습득에서 교차 언어 영향은 목표어의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L2의 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L2 능력이 높은 학습자에 비해 L1으로부터 더 많은 요소를 전이하게 된다. 하지만 L3 습득에서는 L2와 L3, 두 언어의 능력이 바탕언어 선택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Klein(1995:420)은 L3 학습자들이 L2 습득 과정을 통해 획득하게 된 고양된 메타언어 능력과 향상된 어휘지식, 보수적

19) · A different acquisition mechanisme for L2s as opposed to L1s, and hence a reactivation of the L2 type mechanisme in L3 acquisition.
· A desire to suppress L1 as being 'non-foreign'and to rely rather on an orientation towards a prior L2 as a strategy to approach the L3.(Hammarberg 2001:36-37).

이지 않은 학습 절차들이 L3 습득을 더욱 용이하게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 수준의 L2, L3 능력에 도달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Cummins(1976:7) 역시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의 습득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면 능력의 경계수준(niveau seuil)에 도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ammarberg(2006:14,23)는 L1과 L2의 활성화 정도는 화자가 L3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을 수 없을 때 증가하며 L3의 발전과 비례하여 언어의 상대적인 활성화 단계가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L2는 학습자의 L2 능력이 높을 때, L2를 자연스런 상황에서 습득하고 사용할 때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Tremblay(2006)는 L1이 영어, L2가 프랑스어, L3가 독일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L2의 능력과 노출이 L3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 L2 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출이 많이 될수록 L3 발화에 L2가 자주 개입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L2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L3에 대한 L2의 영향력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여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L3에 전이시킬 정도의 충분한 L2 능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Muñoz(2006)는 교차 언어 영향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L2 능력을 들었다. 그는 L1이 까딸루냐어와 스페인어 이중 언어이고 L2가 프랑스어인 학습자의 L3 영어 발화에서의 부호 전환을 연구하였는데 스페인어, 까딸루냐어, 프랑스어는 로만어이고 영어는 게르만어로서 영어는 이 중에서 프랑스어와 가까운 언어이다. 하지만 학습자가 영어 생산에 있어서 프랑스어가 아닌 까딸루냐어와 스페인어를 선호한 것은 학습자의 프랑스어 능력이 가장 낮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Dewaele(1998)의 연구에서 프랑스어를 L3로 배우는 네덜란드 학습자는 이미 L2 영어의 습득 과정에서 프랑스어와 유사한 종속절을

만난 적이 있고 L2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프랑스어의 구조와는 다른 네덜란드어의 종속절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3 프랑스어 학습자가 프랑스어를 집중적으로 배운 L2 프랑스어 학습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종속절을 사용한 것은 이 L3 학습자가 L2로부터 전이시킬 만큼 충분한 L3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Dewaele은 적어도 L3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는 형태적 유사성보다 목표어의 능력이 더 중요하며 특히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통사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L3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L3 프랑스어 학습자가 바탕언어로 L2 영어를 선택한 것은 언어의 유형 때문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4) 최근성(l'actualité)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언어보다는 실제로 최근에 사용하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 언어로부터 더 많이 차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Hammarberg(2001)의 연구에서 L3 스웨덴어 학습자가 바탕언어로 L2 독일어를 선택한 이유는 독일어와 스웨덴어의 언어 간의 유형, 독일어의 L2로서의 지위라는 요인과 함께 독일어가 가장 최근에 습득한 언어라는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이다.[20]

이상과 같이 Williams & Hammarberg가 제시한 바탕언어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의 이전 언어 학습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지식, 각 언어에 대한

20) 이 학습자는 독일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도 학습하였다.

능력, 전이의 유형과 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각 요소의 중요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습의 집중도, 학습 연령, 이미 습득한 언어에 대한 감정적 태도, 맥락적 요인(의사소통 상황, 습득의 상황, 대화 상대자의 유형, 문화적 요소) 등이 바탕언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요소들부터 파생되는 구체적 상황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제3언어 습득의 연구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요소가 제3언어 습득에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결론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언어의 유형이라는 점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3. 한국학생의 프랑스어 습득에 있어서 영어 학습의 영향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제3언어 습득에 제1언어와 제2언어가 상호 교차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두 언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제3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제1언어와 제2언어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어떤 언어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지가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의 제1언어, 제2언어와 제3언어의 상관관계이다. 그에 따라 제1언어와 제2언어가 개입하는 정도와 역할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제3언어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서 참고할 바탕언어로 제1언어를 선택할지 제2언어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학습자 개인이나 학습자가 속한 언어 집단의 사회언어학적 환경과 이전의 언어 학습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언어 간의 유형적인 거리이다. 즉, 학습자는 현재 학습하고 있는 제3언어와 유형적으로 가장 유사한 언어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21] 또한 이러한 언어학적 유사성을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제3언어 학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22]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3언어 습득의 틀 안에서 프랑스어를 제3언어(L3)로 학습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제1언어(L1)인 한국어와 제2언어(L2)인 영어의 학습 경험이 현재의 프랑스어 학습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적 분석과 설문조

21) J. Cenoz 2001:18; C. Lindqvist 2009:294; C. Bardel 2006:15.
22) E. Klein 1995:455; M. Bono 2007:38; J. Cenoz 2001:16.

사를 실시하였다.

3.1. 조사 대상 및 목표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에게 프랑스어는 제3언어(L3)이고 제1언어(L1)는 한국어이며 제2언어(L2)는 영어이다.[23]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제3언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한국의 학습자에게 프랑스어 학습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는 프랑스어와 형태적으로 가까운 영어이다.[2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프랑스어 학습과 이전 언어학습의 관계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2장에서 보았듯이 L3 습득에 있어서 L2와 L3의 능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L3 습득에 관여하는 언어 간의 교차 영향은 L2와 L3 능력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25] 따라서 프랑스어 습득에 있어서 영어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와 프랑스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가장 적합한 학습자 집단은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보증할 수 있다. 뿐만

---

23) 프랑스어 이전에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학습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L2는 영어이므로 본 연구는 Williams & Hammarberg(1998:301)의 제3언어 정의를 따를 것이다.
24) M. Tremblay 2006; J.M. Dewaele 1998.
25) Singleton & Ó Laoire 2006:101.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프랑스어 교육이 간단한 문법만 익히는 수준의 초급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정교하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어 고등학교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이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대상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는 외국어고 2, 3학년 프랑스어 전공 학생 102명이다.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 학생들 중 2학년(52명)은 주당 6시간씩 1.5년 동안, 3학년(50명)은 주당 6시간씩 2.5년 동안 프랑스어 학습을 하였다. 1년 정도 프랑스어 학습 기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2학년과 3학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그룹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26] 성적 분석은 프랑스어 전공 학생 102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총 99명(남학생 14명, 여학생 85명)의 유효응답을 대상으로 하였다.[27]

3.2. 조사 방법 및 절차

학생들의 L3인 프랑스어 학습에 L2인 영어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

26) 예를 들어, 프랑스어와 영어의 내신 등급 차이가 2학년과 3학년이 동일하였고 수학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국어와 수학의 경우도 결과가 비슷하였다.

27) 성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공받았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성적 분석과 설문조사이다. 성적은 두 과목의 학교 내신 성적과 공인 언어 능력 시험 성적 두 가지를 연구 도구로 삼았다. 학교 내신 성적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시험이 합산되는 1학기 학기말 성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기말 성적은 두 번의 지필고사(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결과와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의 결과가 합산된 성적이다. 또한,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영어 능력과 프랑스어 능력의 상관관계가 오직 두 언어능력만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과 연관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국어, 수학 과목의 내신 성적도 함께 검토하였다. 학교의 내신 성적이 언어의 다양한 기능과 관련된 수행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읽기와 쓰기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인 언어 능력 성적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인 언어 능력 성적은, 출제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 출제자에 따라 시험의 형식과 수준에 편차가 심하게 날 수 있는 학교 내신 시험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영어 학습 경험이 프랑스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언어 학습 경험과 현재의 언어 능력에 대한 기본 조사,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설문의 첫 부분인 1번~10번은 학생들의 언어 학습 경험과 현재의 언어 능력을 묻는 것이다. 2번은 학생들의 제3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프랑스어를 배우기 이전에 학습한 외국어의 종류와 습득 순서를 알아보았다. 3번~10번은 영어와 프랑스어의 습득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와 배운 기간을 묻고 성적 분석을 위한 영어와 프랑스어의 공인 언어 능력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공인 성적은 Teps, Toefl, Toeic, Ielts를 대상으로 하였고[28] 프랑스어는 Delf, Dalf, TCF를 대상으로 하였다.[29]

설문의 두 번째 부분인 11번~16번은 이전의 영어 학습과 프랑스어 학습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 문항들은 2장의 선행 연구들에서 바탕언어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들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11번은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의 영어의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2번은 영어 학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 13번은 영어 학습

---

28) **Teps**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한 실전영어능력평가 시험으로 청해, 문법, 어휘, 독해 (+말하기) 4개 영역의 990점 만점이다.
Toeic은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개발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생활 또는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평가 시험으로 듣기와 읽기 2개 영역의 990점 만점이다.
Toefl은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개발된 대학수준의 영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개영역의 120점 만점이다.
Ielts는 영연방 국가로 이민을 가거나 학교 입학에 필요한 영어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개 영역의 7점 만점이다.

29) **Delf/Dalf**는 Centre Internatinal d'Etudes Pédagogiques(CIEP)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청취, 독해, 작문, 구술 4개영역에 Delf는 A1, A2, B1, B2, Dalf는 C1, C2로 등급이 구성되어 있다.
TCF는 Centre Internatinal d'Etudes Pédagogiques(CIEP)가 주관하는 프랑스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프랑스어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으로 청취, 문장 구성, 독해, 구술, 작문 5개 영역에 699점 만점이다.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영역을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4번은 영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4-1번, 14-2번, 14-3번은 답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Williams & Hammarberg(1998:322)가 제안한 네 가지 요인 중 세 가지를 문장으로 만들어 제시하였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의견은 14-4번에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15번은 Williams & Hammarberg(1998:322)가 제안한 네 번째 요인인 언어 능력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학습자의 제2언어 중 가장 능력이 뛰어난 제2언어가 바탕언어로 선택된다고 하였는데 한국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제2언어가 영어인 점을 고려하여 영어 능력과 프랑스어 능력의 일반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묻는 것으로 제작하였다. 16번과 16-1번은 그동안의 프랑스어 수업에서 영어와 관련한 수업 경험의 유무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이다. 영어와 관련한 각 설문의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설문

번호	문항 내용
11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데 이전의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되었나요?
12	영어가 도움이 되었다면 프랑스어 학습의 어떤 시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13	영어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4	다음은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14-1	프랑스어와 영어가 비슷한 어휘나 문법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한 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14-2	프랑스어 학습도 외국어 학습이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하는 동안 익혔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 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14-3	영어가 가장 최근 배운 외국어이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하거나 쓸 때 영어를 자주 참고하게 된다.
14-4	기타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15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프랑스어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6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프랑스어를 영어와 관련지어(어휘, 문법 등)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16-1	16번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설문의 세 번째 부분인 17번~22번은 한국어 학습 경험이 프랑스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의 두 번째 부분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차이와 한국어는 모국어이고 영어는 외국어라는 차이를 고려하여 문항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다.[30] 한국어와 관련한 각 설문의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설문 문항 내용 수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3.3.2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표 2>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설문

번호	문항 내용
17	프랑스어를 배우는 데 이전의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되었나요?
18	한국어가 도움이 되었다면 프랑스어 학습의 어떤 시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19	한국어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20	다음은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세요.
20-1	한국어에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고 유사한 문법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20-2	한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20-3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하거나 쓸 때 한국어를 자주 참고하게 된다.
20-4	기타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21	한국어를 잘하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프랑스어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2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프랑스어를 한국어와 관련지어(어휘, 문법 등)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22-1	22번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11~22번 문항 중 학습자의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상관이 없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5개의 척도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상반기 프랑스어 Delf/Dalf 시험 성적이 발표되고 학교의 기말 성적이 산출된 이후를 선택하여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한차례 실시되었으며 설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약 20~25분이 소요되었다.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3. 조사 결과 및 분석

3.3.1. 언어 학습 순서와 기간

1) 언어 학습 순서

설문에 참여한 99명의 학생들은 설문이 이루어진 시점에 외국어로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67명의 학생은 한국어-영어-프랑스어의 순으로 언어를 학습하였다고 답하였고 32명의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 난 후 프랑스어를 배우기 이전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른 외국어를 학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모국어와 현재 학습하고 있는 언어 사이에 학습한 모든 언어를 L2 라고 부르는 Williams & Hammarberg 의 제3언어 정의를 따르자면 67명의 학생은 L1이 한국어, L2가 영어, L3가 프랑스어가 되고 32명의 학생들은 L1이 한국어, L3가 프랑스어이고 L2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3> 프랑스어 이외의 제2외국어를 학습한 학생의 언어학습 현황

L2	인원
영어, 일본어	16
영어, 중국어	10
영어, 스페인어	1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2
영어, 일본어, 중국어	2
영어, 줄루어, 일본어	1
계	32

연대기적으로 세 번째 배우는 언어를 제3언어라고 정의한다면 이들에게 프랑스어는 L3가 아니라 L4 혹은 L5가 된다. 그런데 만약 Williams & Hammarberg의 정의를 따른다면 이들에게 프랑스어는 공통적으로 L3이고 L2가 다양한 경우가 된다. L3가 프랑스어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논문에서 이들을 제외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들의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학습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학생들은 위의 외국어들을 중학교의 생활외국어 시간을 통하여 학습하였으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학습기간이나 교육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능력은 기초만 익힌 초급 단계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현재의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L2는 영어라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영어 능력과 프랑스어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이들의 자료를 포함하더라도 논의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함께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언어는 L1 한국어, L2 영어, L3 프랑스어로 정리할 수 있다.

2) 언어 학습 기간

설문에 참가한 학생들의 영어와 프랑스어 습득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와 학습 기간을 조사 하였다. 이는 만약 각각의 언어를 처음 접한 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나이에 따른 분리 연구가 가능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 습득에 적절한 나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 조기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되기 이전에 초등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45명의 학생은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영어를 접하였고 53명의 학생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영어를 학습한 기간도 대부분 10년 전후에 분포하였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학생이 7.6년이었고 가장 긴 학생이 16년인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하여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배운 시기에 따라 분리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프랑스어는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어 학습기간이 1년~2년인 학생은 54명, 2년~3년인 학생은 45명이었다. 일반적으로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는 학습을 시작한 시기가 모두 동일하였고 학습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전체를 하나로 분석한 결과와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 대상자를 학습기간의 구분 없이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프랑스어를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인 17세 정도에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언어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어느 정

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설문의 대상자들은 제1언어(L1)로 한국어를, 제2언어(L2)로 영어를, 제3언어(L3)로 프랑스어를 학습하였으며 영어는 대부분의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하여 배우기 시작하여 학습 기간이 10년이 넘은 반면 프랑스어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성적 분석

3.3.2.1. 내신 성적 분석

1)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

학생들의 프랑스어 능력과 영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랑스어 전공 학생 102명의 두 과목 학교 내신 성적을 비교하였다.[31] 현재 내신 성적은 상대평가에 의한 9등급 체계[32]를 택하고 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9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며 상

31) 외고 학생들의 경우, 한 학기에 '영어 회화', '영어 독해',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 문화' 등등 여러 과목의 외국어 수업을 이수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가진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영어 독해'와 '프랑스어 독해' 과목의 내신 성적을 표본으로 삼았다.

32) 상대 평가에 따른 내신의 등급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내신 등급 체계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1~4	~11	~23	~40	~60	~77	~89	~96	~100

대평가이므로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평균 등급은 항상 5등급이다. 등급이 높아졌다는 말은 9→8→7→6→5→4→3→2→1 으로 등급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의 성적 비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영어와 프랑스어의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 다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상대 평가는 그 과목을 이수한 전체 학생 중에 자신의 등수를 백분위로 나타낸다. 그런데 영어는 전체 학년이 모두 이수하는 과목이므로 학년 전체의 학생을 대상으로 백분위를 산출하고 프랑스어 과목은 프랑스어 전공 학생만 이수하므로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분위를 산출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먼저, 프랑스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영어 성적도 우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대상 학생 102명 개개인의 프랑스어 등급과 영어 등급의 차를 구해 절대값을 산출해 보았다.[33] 그 결과 두 과목은 평균 0.08등급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간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4]

<표 5> 프랑스어와 영어의 등급 간 격차

등급 차	0	1	2	3
인원	26	45	20	11

프랑스어와 영어의 등급 차이가 '0'이란 말은 두 과목의 등급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등급 차이가 '1'이라는 말은 프랑스어 등급보다

33) 등급간 격차(절대값) = | 프랑스어 등급-영어 등급 |

34) 프랑스어와 영어의 등급 차가 3인 11명의 학생 중 4명(프랑스어 4, 5 등급)은 영어가 낮았고 7명(프랑스어 5, 6, 7, 8, 9 등급)은 영어가 더 높았다. 이는 프랑스어 하위권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등급이 1등급 높거나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과목의 등급차가 1이내인 학생의 수는 총 71명으로 이는 전체의 2/3가 넘는 수치이다. 평균 등급차이가 0.08인 것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급차이 0, 1, 2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등급 차이가 4이상 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다시 말해, 프랑스어 등급과 영어 등급은 전체 9등급 체계 안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프랑스어 등급이 높은 학생은 영어 등급도 높고 프랑스어 등급이 낮은 학생은 영어 등급도 낮으며 현저한 등급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5>는 등급 간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가 2등급인 두 학생의 영어등급이 한명은 1등급이고 다른 한 명은 3등급이어서 실제로 영어 등급이 2등급이나 차이가 나더라도 프랑스어와의 등급차이는 똑같이 1로 계산되기 때문이다.(즉, |프랑스어 등급-영어 등급| = |2-1| = |2-3| =1)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관관계 규명을 위하여 프랑스어 내신 등급이 동일한 학생들의 영어 내신의 평균 등급을 프랑스어 등급별로 산출해 보았다.

<표 6> 프랑스어 기준 영어의 등급 평균

프랑스어 등급	1	2	3	4	5	6	7	8	9
영어등급 평균	1.25	2.75	3.67	4.06	5.00	5.50	6.42	7.57	7.75

<표6>에서 프랑스어를 1등급 받은 학생들의 영어 평균 등급은 1.25등급이었고 학생들의 프랑스어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낮아질수록 영어 등급도 1.25 → 2.75 → 3.67 → 4.06 → 5.00 → 5.50

→ 6.42 → 7.57 → 7.75로 순서의 변화 없이 낮아졌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어 성적이 우수할수록 영어 성적이 비례하여 우수하고 프랑스어 성적이 낮을수록 영어 성적이 비례하여 낮으며 성적이 역전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어 5등급까지 학생들의 프랑스어 등급과 영어 평균 등급은 일치하는 반면 프랑스어 6등급부터는 프랑스어 등급보다 영어 등급 평균이 1등급씩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신은 상대평가 체계를 따르고 있고 프랑스어 성적 산출시 백분위의 분모는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2학년 52명, 3학년 50명)인 반면 영어는 학년 전체의 필수 과목이라 같은 학년 전체의 학생(2학년 206명, 3학년 200명)이 백분위의 분모가 된다.[35] 따라서 프랑스어 등급이 6등급인 학생들의 영어 평균 등급이 5등급이라는 것은 전공어(예를 들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등) 성적은 6등급이면서 영어는 6등급보다 낮은 다른 전공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6>은 학생들의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비례한다는 점과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요약하자면,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거의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프랑스어 성적과 국어, 수학 성적

한편,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가 오직 프랑스어 학습 능력과 영어 학습 능력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35) 예를 들어, 2학년의 경우, 영어는 {자신의 등수/영어 이수 학생수(206명) x 100}, 프랑스어는 {자신의 등수/프랑스어 이수 학생 수(52명) x 100}으로 계산하여 나온 백분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습 능력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기본 학습 능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모든 과목의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어서 영어와 프랑스어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 이외에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과목의 성적을 분석해 보았다.[36] <표7>은 연구 대상자인 102명의 국어, 수학, 영어, 프랑스어 네 과목의 등급 평균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 7>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 등급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프랑스어
평균등급	5.14	5.28	4.90	4.98[37]

<표7>을 통해 이 학생들은 평균 등급이 제일 높은 영어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 국어를 잘하며 수학을 제일 못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급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과목별 평균 등급은 과목에 상관없이 항상 5.00이다. 등급 평균이 5.00보다 낮다는 것은 전체 평균보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5.00보다 높다는 것은 전체 평균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7>은 이 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36) 사회와 과학도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사회는 선택 과목으로서 학생에 따라 '지리', '윤리', '세계사' 등으로 달라 전체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였고 과학은 '생활 과학'으로 학습 내용이 과학적인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국어와 수학만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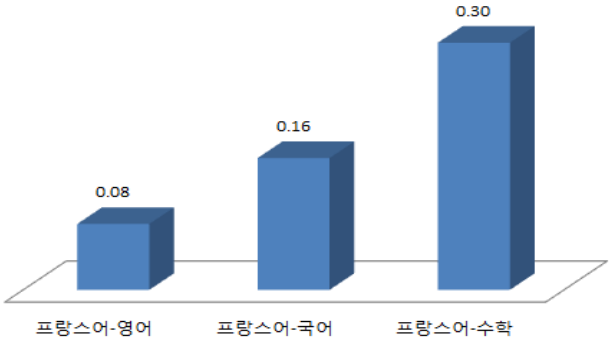
37) 프랑스어의 경우 프랑스어 전공 학생만 수강하므로 평균 등급이 5.00이 되어야 하지만 4.98로 나온 것은 산출되지 않은 등급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체 수강인원이 50명인 과목의 1등급은 4%인 2명이 받게 되는데 만약 최고 성적의 동점자가 4명이 나왔다면 이 과목은 1등급이 없고 4명 모두 2등급을 받게 된다.

영어를 평균 이상 잘하고 국어와 수학은 평균보다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연구대상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평균 이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이 다른 외국어 전공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의 입학 당시의 영어 성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영어 성적만으로 입학 사정을 하는 외국어고에서 특별히 프랑스어과에 영어가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학생들의 선호 학과가 달라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입학 당시의 영어 성적은 학과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 이후 1~2년이 흐른 시점에서 영어 성적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의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프랑스어 네 과목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였고 다른 외국어 전공의 학생에 비해 영어를 더 잘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아가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에서 나타난 상관관계가 다른 과목과의 관계에서도 발견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프랑스어 등급과 국어, 수학의 등급 차이를 프랑스어와 영어의 등급 차이와 비교하여 보았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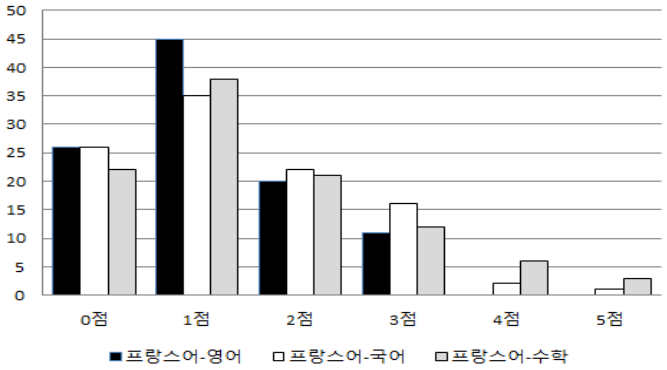
38) 프랑스어와 국어 등급 간 격차(절대값) = | 프랑스어 등급 - 국어 등급 |, 프랑스어와 수학의 등급간 격차(절대값) = | 프랑스어 등급 - 수학 등급 |.



<그림 1> 프랑스어와 다른 과목의 평균 등급

그 결과 프랑스어와 국어의 등급 차이는 0.16, 프랑스어와 수학의 등급 차이는 0.30으로 이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등급차인 0.08의 약 2배와 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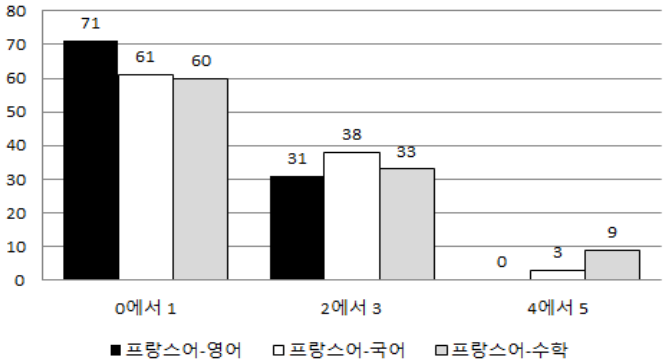
이러한 과목 간 평균 등급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구간을 세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림 2> 과목별 등급 차이별 인원 (1)

<그림2>에서 보듯이 프랑스어와 영어의 등급 차이가 0~2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어와 수학과의 등급차이는 0에서 5까지 넓게 분

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어와 영어의 등급 차이에서는 한 명도 없었던 등급차이 4, 5인 학생의 수가 국어에서는 3명, 수학에서는 9명이 있었다. 즉, 프랑스어와 국어, 수학은 등급의 차이가 크게 나는 학생이 많다는 뜻인데 이는 <표7>에서 보듯이 이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성적이 낮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3>과 같이 등급 차이를 0~1, 2~3, 4~5로 묶어보면 이러한 추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3> 과목별 등급 차이별 인원 (2)

<그림2>와 <그림3>을 통해 프랑스어와 영어 성적은 비례하는 것에 반해 프랑스어 성적은 높고 국어와 수학은 성적이 낮은 학생과 프랑스어 성적은 낮고 국어와 수학 성적은 높은 학생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와의 등급 차가 5인 학생(1명)의 프랑스어 등급은 2였고 국어 등급은 7이었으며 등급 차가 4인 학생(2명)의 (프랑스어 등급, 국어 등급)은 각각 (1,5), (7,3)으로 프랑스어 등급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고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국어 등급이 프랑스어보다 현저히 낮은 학생들도 영어와 수학 등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학생들은 국어가 특별히

취약한 학생들로 볼 수 있다.[39] 한편, 수학과의 등급 차가 5와 4인 9명의 학생 가운데 프랑스 등급이 더 높은 학생은 6명이었고 프랑스어 등급이 더 낮은 학생은 4명이었다. 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국어와 영어 등급은 큰 차이가 없었다.[40] 따라서 프랑스어와 수학의 등급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은 특별히 수학이 취약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등급의 차이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목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프랑스어 등급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 등급을 비교하였다.

<표 8> 프랑스어 등급 기준 과목별 평균 등급

프랑스어	영어	국어	수학
1	1.25	3.75	3.00
2	2.75	3.75	4.00
3	3.67	**4.17**	4.42
4	4.06	**4.00**	4.94
5	5.00	**5.50**	5.30
6	5.50	**5.44**	5.50
7	6.42	5.92	6.25
8	7.57	7.29	**7.14**
9	7.75	7.75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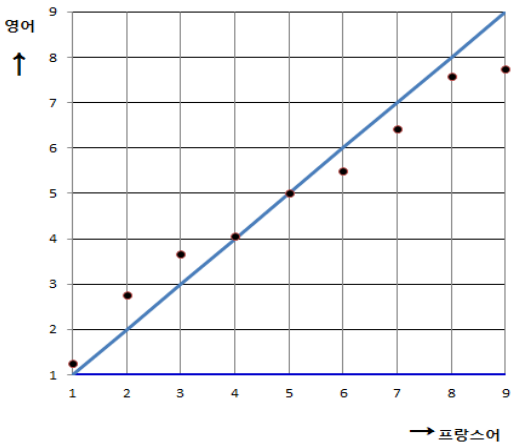
앞의 <표6>에서 보았듯이 프랑스어 5등급까지 프랑스어 등급과 영어 등급은 일치하였다. 하지만 <표8>을 보면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프랑스어가 1등급인 학생들

39) 프랑스어와 국어의 등급 차가 5인 학생의 (영어, 수학) 등급은 (4, 5), 4인 학생의 (영어, 수학) 등급은 (2, 4), (5, 5)였다.

40) 수학과 4 혹은 5등급 차이가 나는 학생(9명)의 (영어, 국어)등급은 (2, 3), (5, 4) (6, 6), (4, 2), (4, 7), (5, 4), (5, 5), (5, 6), (8, 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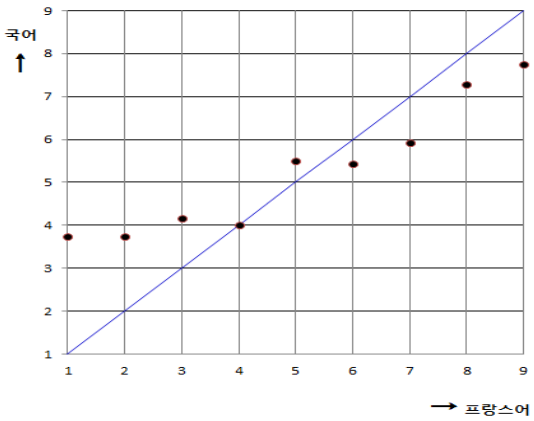
의 국어 평균 등급은 3등급, 수학 평균 등급은 3등급이었고 프랑스어가 2등급인 학생의 국어 평균 등급은 3등급, 수학 평균 등급은 4등급으로 등급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국어와 수학은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영어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프랑스어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낮아짐에 따라 영어 등급은 동반하여 하락하였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국어의 경우 프랑스어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의 국어 평균 등급은 동일하게 3.75등급으로 차이가 없었고 <표8>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처럼 프랑스어 3등급 학생의 국어 평균 등급은 4.17이지만 프랑스어 4등급 학생의 국어 평균 등급은 4.00으로 오히려 프랑스어 3등급 학생보다 높았다. 이러한 등급의 역전 현상은 프랑스어 5등급(국어 5.50)과 6등급(국어 5.44)사이에서도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이 경우 프랑스어 성적이 낮은 학생의 국어 성적이 더 높다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의 수학 평균 등급은 같은 4등급 대(각각 4.00, 4.42, 4.94)였으며 프랑스어 등급 9등급 학생의 수학 평균 등급이 프랑스어 8등급 학생의 수학평균 등급보다 높게 나타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프랑스어 성적과 과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프랑스어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영어, 국어, 수학 과목의 평균 등급을 (프랑스어 등급, 과목별 등급)을 좌표로 하여 나타내 보면 <그림4>~<그림6>과 같다. 각 그림에서 중앙의 대각선은 두 과목의 등급이 일치하는 점을 연결한 선이다. 따라서 점이 이 대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두 과목의 등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을 연결하였을 때 직선에 가깝다면 성적이 역전 현상 없이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점이 중앙 대각선 위쪽에 위치하면 그 과목의 성적이 프랑스

어보다 낮다는 것을, 중앙 대각선 아래쪽에 위치하면 그 과목의 성적이 프랑스어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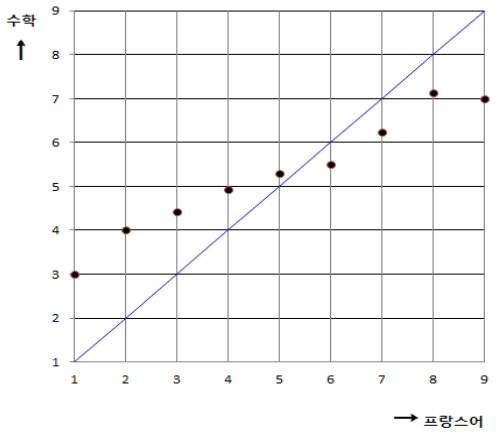
<그림 4> 프랑스어 기준 영어 평균 등급

프랑스어와 영어 성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4>에서 점들은 대각선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점을 이었을 때 거의 대각선과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랑스어 등급과 영어 등급이 거의 일치하며 프랑스어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 등급 내에서도 역전 현상 없이 성적이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프랑스어 6등급 이후부터 점들이 중앙 대각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어 등급에 비해 영어 등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프랑스어 기준 국어 평균 등급

반면, 프랑스어와 국어 성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5>에서 점은 프랑스어 4등급에서 일치하기까지 대각선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프랑스어 등급차이와 상관없이 거의 가로 일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모든 점들을 이었을 때 대각선과는 무관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지그재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4>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6등급 이후부터 점들이 중앙 대각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어가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국어 성적은 우수하지 않으며 프랑스어 성적과 국어 성적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어 등급이 프랑스어와 크게 상관없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6> 프랑스어 기준 수학 평균 등급

프랑스어와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6>은 앞의 두 그림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6>에서 점은 프랑스어 등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시작하고 있지만 <그림5>와 달리 프랑스어 6등급까지 일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사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점들을 연결하였을 때 중앙의 대각선과 밀착하지는 않지만 지그재그 형태가 아니라 마지막 구간을 제외하고 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림4>, <그림5>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6등급 이후부터 점들이 중앙 대각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6>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학을 잘 하지 못하지만 수학 성적이 국어 성적보다는 프랑스어 성적과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7>의 결과처럼 이 학생들은 영어, 국어, 수학의 순으로 잘하는 학생들이다. 또한, 국어와 수학 성적의 하락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이 과목들과 프랑스어 성적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학이 좀 더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국어보다는 상대적으로 프랑스어와 비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프랑스어 6등급 이후부터 영어, 국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등급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어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의 영어, 국어, 수학 성적이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공어 등급이 동일한 다른 전공 학생들의 영어, 국어, 수학 등급이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보다 낮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프랑스어와 영어의 성적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수학이며 프랑스어와 국어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다.

이상의 내신 성적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의 영어 성적 평균 등급이 전체의 평균 등급인 5.00보다 우수한 4.90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학생들이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어고 학생들은 영어를 공통으로 배우면서 각자의 전공 외국어(독일어, 일본어 등)를 함께 배우게 된다. 따라서 '영어+프랑스어', '영어+독일어', '영어+일본어'와 같은 식으로 3년간 외국어 학습을 하게 되므로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국어 학습의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어 전공 학생의 영어 성적이 2,3 학년 모두에서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프랑스어 학습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프랑스어 학습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 영어와 프랑스어의 조합이 다른 어떤 제2외국어와의 조합보다 영어 학습에 매우 유리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수치는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의 언어 경험이 현재의 언어 학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역으로 나중에 배운 언어 학습이 이전의 언어 학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De Angelis & Selinker

(2001:42)의 연구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있어서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 사이에서는 다른 과목과의 비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어 성적이 5등급 이상인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은 완전히 일치하였고 프랑스어 성적이 6등급 이하인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도 등급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례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개인적인 비교에서는 등급이 역전된 경우가 있었지만 평균 등급으로 비교해 봤을 때 프랑스어 성적이 우수한 집단은 영어 성적이 우수하였고 프랑스어 성적이 낮은 집단은 영어 성적이 낮았으며 성적이 역전된 경우는 없었다. 이로써 프랑스어 학습능력과 영어 학습능력은 매우 상관관계가 높으며 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셋째,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 사이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만큼의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의 국어 평균 등급은 전체의 평균등급인 5.00보다 낮은 5.14로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랑스어 등급과 국어 등급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례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 프랑스어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낮아지는 동안 국어 평균 등급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프랑스어 등급이 높은 학생이 국어 등급은 오히려 낮은 성적의 역전 현상이 두 군데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랑스어 학습능력과 한국어 학습능력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넷째, 학생들의 수학 평균 등급은 5.28로 분석의 대상인 네 과목 중에서 가장 낮았다. 프랑스어와의 등급 차이도 가장 커서 국어의 2배, 영어의 4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프랑스어를 잘 한다고 해서

수학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성적의 추이에서는 프랑스어 등급이 더 낮은 학생이 수학은 더 높게 나오는 8, 9 등급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사이에서는 프랑스어 등급이 높은 집단이 수학 등급이 높고 프랑스어 등급이 낮은 집단이 수학 등급이 낮게 나타나 성적의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연구 대상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L3 프랑스어 학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L2 영어 학습이었으며 L1 한국어 학습과는 영어보다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3.2.2. 공인 언어 성적 분석

프랑스어 능력과 영어 능력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하여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이어 공인 어학 능력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99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영어와 프랑스어 공인 어학 능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기재한 학생의 자격증 소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 영어 공인 어학 자격증 소지 현황

자격증의 종류	인원(명)
Teps	36
Toefl	6
Toeic	2
Iel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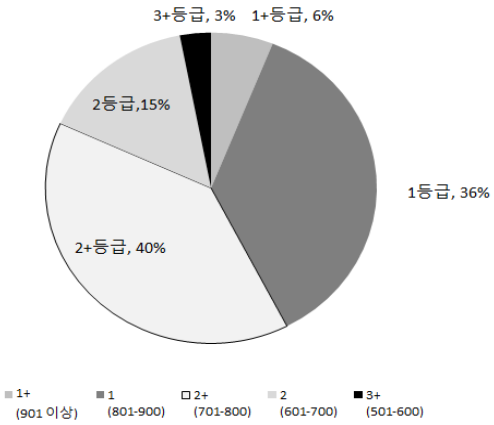
<표 10> 프랑스어 공인 어학 자격증 소지 현황

자격증의 종류	인원(명)
Delf	84
Dalf	0
TCF	0

전체 99명의 학생 중 영어 공인 어학 자격증은 전체의 43.44%인 44명이, 프랑스어 공인 어학 자격증은 전체의 84.86%인 84명의 학생이 소지하고 있었다. 프랑스어나 영어 한 언어의 자격증만 소지한 학생도 있었고 일부의 학생은 Teps와 Toeic, Teps와 Toelf 등 두 개의 영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공인 어학 성적을 통해 프랑스어 능력과 영어 능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소지하고 있는 영어의 Teps와 프랑스어의 Delf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33명의 공인 어학 성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Teps와 Delf는 서로 다른 점수 체계를 따르고 있다. Teps는 시험에 응시한 후 본인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Teps는 등급보다는 획득 점수로 영어 구사 능력을 구분하고 있다. 반면 Delf는 응시자가 희망하는 등급(A1, A2 등등)을 지정하여 시험을 본 후 시험의 네 영역 중 한 영역에서도 낙제하지 않고 100점 만점에 총점 50점 이상을 얻으면 그 등급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체계이다. 예를 들어, 89점으로 B1을 획득한 학생보다는 51점으로 B2를 획득한 학생이 총점은 더 낮지만 등급이 더 높으므로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이다. Delf가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언어 능력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Teps 역시 등급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Teps는

만점 990에서 최저점 10점까지의 성적을 다시 10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조사 대상자 33명의 Teps 성적 중 최저점은 600점이었고 최고점은 935점이었는데 등급별 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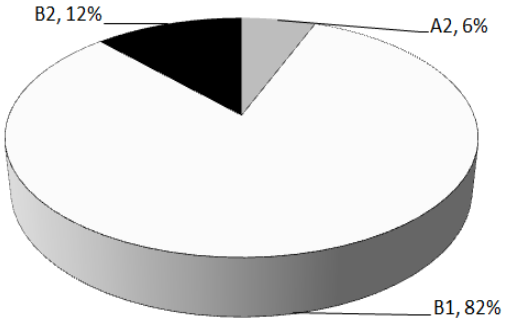


<그림 7> Teps 등급별 현황

33명의 학생들의 Teps 등급은 1+에서 3+까지 상위 5개 등급 이내에 속해 있다. Teps 위원회는 3+등급에 대해 외국인으로서 중급 이상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1] 따라서 이들 학생의 영어 구사 능력은 평균 이상의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Delf의 등급은 가장 낮은 A1부터 A2, B1, B2의 네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 대상자 33명의 등급에 따른 Delf 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41) 3+등급 : 외국인으로서 중급 수준의 의사소통능력(Mid Intermediate Lev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중장기간 집중 교육을 받으면 한정된 분야의 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음. Teps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teps.or.kr/) 참조.



<그림 8> Delf 등급별 현황

Delf B1과 B2는 프랑스 대학으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갈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이다. 이러한 등급을 프랑스어를 배운지 1년 6개월~2년 6개월 만에 취득했다는 것은 이 학생들의 프랑스어에 대한 학습 동기가 매우 강하고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33명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공인 어학 성적은 매우 우수한 등급이었다.

먼저, 공인 어학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격증을 가진 33명의 프랑스어와 영어 내신 평균 등급을 전체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과 비교해 보았다.

<표 11> 자격증 소지자의 내신 평균 등급

구분	프랑스어	영어
전체 평균	4.98	4.90
자격증 소지자의 평균	3.66	3.06

공인 어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내신 성적은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에서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우수한 성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인 어학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

이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만 공인 어학 성적과 내신 성적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공인 성적 등급을 기준으로 내신의 평균 등급을 산출해 보았다.[42]

<표 12> Teps 등급과 영어 내신 등급 평균

Teps 등급	1+	1	2+	2	3+
영어 등급	2	2	3.5	4.25	5

<표 13> Delf 등급과 프랑스어 내신 등급 평균

Delf 등급	B2	B1	A2
프랑스어 등급	2.25	3.65	6.5

그 결과, 공인 어학 등급과 내신 성적의 추이는 비례하였다.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Teps의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영어 내신 등급이 높았고 Delf 등급이 높은 학생 역시 프랑스어 내신 등급이 높게 나타났다. 각 등급별 학생들의 숫자가 차이가 많았고 또한 학교 내신 시험과 공인 어학 능력 시험의 출제와 채점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시험 간에 이러한 비례

42) Teps 최고 득점자(935점)의 영어 내신은 3등급이었고 영어 내신 1등급(4명)의 Teps 점수는 911, 877, 823, 808로 모두 1등급 이상이었다. Teps 소지자 중 영어 내신이 가장 낮은 학생은 Teps 700점 내신 6등급인 학생이었다.
Delf의 가장 높은 등급인 B2 소지자(4명)의 프랑스어 내신은 1, 2, 2, 4등급이었으며 프랑스어 1등급(5명)의 Delf등급은 B1 4명, B2 1명이었다. A2 소지자의 프랑스어 내신 평균 등급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은 표본이 적었기(2 명: 내신 6등급, 7등급) 때문이다. B1 소지자 중에도 프랑스어 내신 6등급이 5명, 7등급이 1명 있었지만 B1의 표본이 72명으로 많았기 때문에 B1 소지자의 평균 내신은 상승하였다.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두 시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유형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공인 어학 성적 어느 것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인 어학 능력 성적을 통해 학생들의 프랑스어 능력과 영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Delf 성적과 Teps 성적을 비교하였다.

Delf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한 Delf등급을 가진 학생들의 Teps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14> Delf 등급에 따른 Teps 점수 평균

Delf 등급	B2	B1	A2
Teps 평균	843.75	786.22	727.50

Delf의 등급이 A2 → B1 → B2로 높아질수록 Teps의 평균 점수도 727.50 → 786.22 → 843.75 로 상승하였다. 즉, Delf의 등급이 높은 학생은 Teps에서도 고득점 하였고 Delf 등급이 낮은 학생은 Teps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외적인 구간은 없었다. 이로서 앞서 3.3.2.1에서 내신 성적을 통해서 확인된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공인 언어 시험 성적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한편, 공인 어학 자격증을 가진 33명의 학생들 중 13명의 학생은 프랑스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습득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어학 능력이 프랑스어 학습 이전에 오직 영어만 배운 학생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의 공

인성적 평균과 내신 등급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표 15> 이전 언어 학습 경험이 다른 학생들의 성적 비교

	Teps 평균	영어 내신 등급	프랑스어 내신 등급
A (n=13)	804.615	2.69	3.46
B (n=20)	779.90	3.30	3.79

(A) : 영어 → 다른 외국어 → 프랑스어 순으로 학습한 학생
(B) : 영어 → 프랑스어 순으로 학습한 학생

프랑스어 학습 이전에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를 학습한 A그룹의 학생들은 등급만 알 수 있어서 점수의 비교가 불가능한 Delf를 제외하고 Teps, 영어 내신, 프랑스어 내신의 모든 성적에서 B그룹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43] 비록 표본의 숫자가 13명으로 많지 않고 학습한 언어가 상이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표15>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학생들의 이전 외국어 습득 경험이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중 언어 학습자가 단일어 학습자에 비해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언어를 하나씩 추가해서 배울수록 언어 습득 능력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lein 1995:424).

이상의 공인 어학 성적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프랑스어와 영어 능력이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프랑스어 공인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영어 공인 성적도 우수하였고 프랑스어 공인 성적이 낮은 학생은 영어 공인 성적도 낮

43) A그룹 학생 13명의 Delf 등급은 A2(1명), B1(10명), B2(2명)으로 자격증 소지자 전체의 등급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았으며 예외는 없었다. 다시 말해 두 언어의 공인 어학 성적은 비례하였다. 공인 어학 성적의 분석을 통하여 내신 성적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성적과 영어 성적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3. 설문 분석

학생들이 실제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두 언어 학습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첫 부분은 응답자의 언어 학습 이력과 현재의 능력과 같은 기본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은 앞의 3.3.1과 3.3.2에서 다루었다. 설문의 나머지 부분은 프랑스어를 학습하기 이전의 영어와 한국어 학습 경험이 현재의 프랑스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설문에 따라 3개, 4개 혹은 5개로 구성된 척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였고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 서술형으로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분석에 앞서 L3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의 배경언어인 L1 한국어와 L2 영어의 역할에 개입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4]

44) <표16>은 P.Trévisiol(2006:8)에서 표기 방식을 참고하였다.

<표 16> L3 프랑스어 학습의 배경언어 역할에 개입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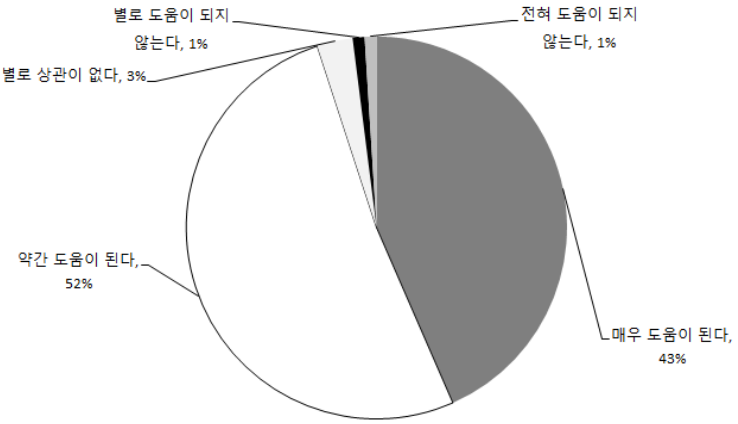
	L1 한국어	L2 영어
유형	- L3 와 멀다	+ L3와 아주 가깝다
L2로서의 지위	-	+
최근성	++ 규칙적 사용	+ 가끔 사용
능력	++ 원어민 수준	+ 보통

<표16>에서 한국의 L3 프랑스어 학습자는 제시된 네 가지의 요소에서 모두 '+'를 기록하여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측정되는 영어로부터 영향을 받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L1 한국어와 L2 영어가 L3 프랑스어 습득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3.3.3.1.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상관관계

1) 프랑스어 학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프랑스어를 학습하는데 이전의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3.43%,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1.52%로서 두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94.95%에 이른다.



<그림 9> 프랑스어 학습에 대한 영어 학습의 영향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1명씩이었는데 이 학생들의 프랑스어와 영어 내신 등급은 모두 가장 낮은 9등급이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언어 학습 능력이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관계를 인식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시기

영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시기에 대해서는 54.55%의 학생이 ‘프랑스어 초급단계’라고 응답하였고 45.45%의 학생이 ‘프랑스어 중급단계’라고 응답하였으며 ‘프랑스어 고급단계’라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표 17>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가 도움이 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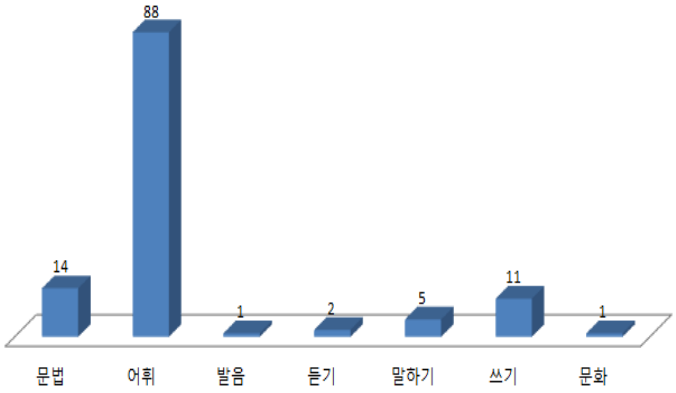
프랑스어단계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무응답
비율(%)	54.55	45.45	0	0

프랑스어 '중급' 단계에서보다는 프랑스어 '초급' 단계에서 영어 학습의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L3인 프랑스어의 능력이 발전할수록 학습자는 L2에 도움을 덜 청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차 언어의 영향은 초보 학습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Lindqvist(2009:288)의 연구 결과와 이전에 획득한 언어에서 차용하는 것은 중급 단계까지 개입한다는 Trévisiol(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어 '고급'단계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것은 L2인 영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L3 프랑스어 능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45] 학생들이 아직 자신의 프랑스어 단계가 고급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영역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된 구체적인 영역을 묻는 설문에는 복수로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 군데도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없었다.

45) Williams & Hammarberg(1998:324)는 L3 습득이 진행되어 학습자의 L3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 두 가지 역할은 L3가 스스로 충족하게 되어 단일어 상황이 된다고 하였고, C.Lindqvist(2009:289)은 고급 단계에서는 바탕언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언어내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그림 10>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된 영역

Dewaele(1998)과 Flyn, Foley & Vinnitaskaya(2004)는 교차 언어 현상은 일반적으로 어휘와 통사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영어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역시 '어휘'가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문법'이었다. 왜 '어휘'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형으로 기술한 응답에 잘 나타나 있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영어와 프랑스어에 어원이 같거나 비슷한 어휘가 많아서 낯선 프랑스어 어휘를 만났을 때 영어 단어로부터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쓰기'와 '발음'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휘가 형태적, 음성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작문에 필요한 어휘를 떠올릴 때 알고 있는 영어 어휘로부터 추론하는 것이 용이하였고 영어 어휘와 프랑스어 어휘가 발음이 유사한 것이 많아서 단어를 암기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두 언어의 언어학적인 유사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프랑스어 학습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이유

학생들이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하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제시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묻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의 제시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형식이었다. 첫 번째 형식에서 제시된 내용은 앞의 2.4에서 L3 습득에서 바탕언어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것으로 언급된 네 가지 요인인 언어 유형의 유사성, L2로서의 지위, 최근성 그리고 능력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 요인인 L2, L3 능력에 대해서는 따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처음의 세 가지 요인은 하나의 문항에 세부 문항으로 묶어 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영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14. 다음은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세요.
14-1. 프랑스어와 영어가 비슷한 어휘나 문법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한 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14-2. 프랑스어 학습도 외국어 학습이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하는 동안 익혔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 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14-3. 영어가 가장 최근 배운 외국어이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하거나 쓸 때 영어를 자주 참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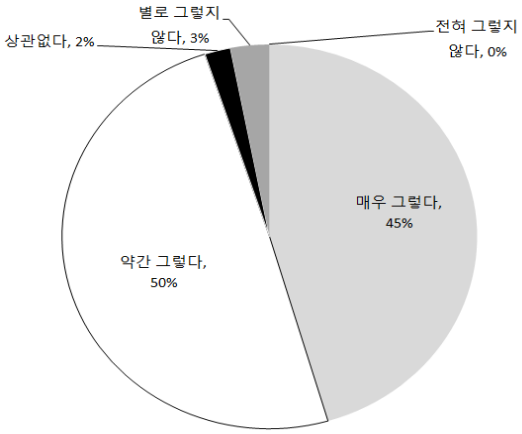
14-1은 '형태적 유사성', 14-2는 'L2로서의 지위', 14-3은 '최근성'과 관련된 것이다. 세 문항에 대한 응답 중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하나로 묶어서 비율을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14번 세부 문항 긍정적 응답률

문항 번호	14-1	14-2	14-3
응답률	94.95	86.87	73.74

세 문항 모두에 대해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요인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작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영어의 영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영어는 프랑스어와 언어학적으로 매우 가깝고 학생들의 제2언어이며 가장 최근에 배우고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이다. 다시 말해,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언어이므로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바탕언어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항을 긍정적 응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14-1, 14-2, 14-3의 순이었다. 이는 세 가지의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태적 유사성'이고 그 다음이 'L2로서의 지위'이며 마지막이 '최근성'이라는 것을 뜻한다. 각 문항의 응답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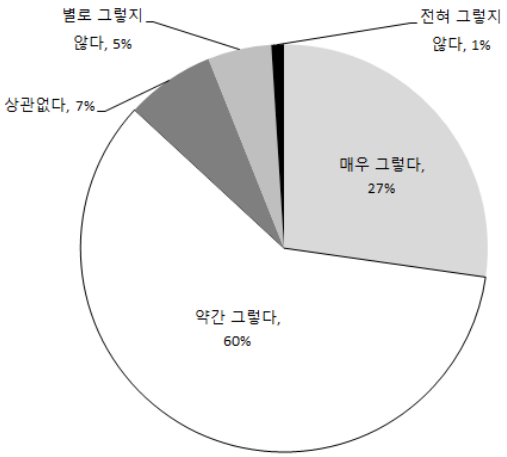
14-1은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두 언어 사이의 문법과 어휘의 유사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림 11> 14-1번 문항 응답률

14-1에 대하여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45.45%). 이 결과는 학생들이 프랑스어와 영어의 언어학적 유사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유사성이 두 언어 학습이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탕언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어 간의 형태적 유사성이라고 한 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Cenoz 2001, Bardel 2006, Singleton & Ó Laoire 2006, Lindqvis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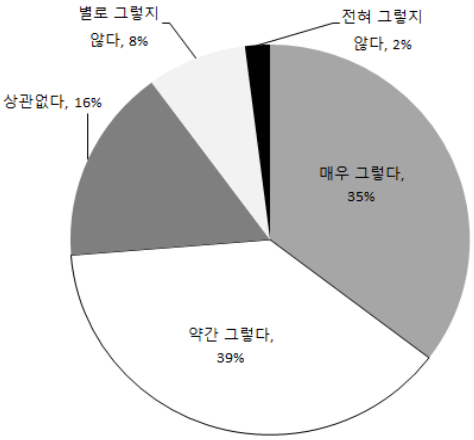
14-2는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영어가 가지게 되는 'L2로서의 지위'라고 본다는 내용이다.



<그림 12> 14-2번 문항 응답률

14-2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부분은 '약간 그렇다'(59.60%)이고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7.27%로서 14-1의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 45.45%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의 'L2로서의 지위'가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형태적 유사성'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프랑스어 학습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언어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영어가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프랑스어와 영어가 형태적으로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Hammarberg(2006:17)도 두 학습자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바탕언어 결정에 'L2로서의 지위'보다는 '언어 유형의 유사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14-3은 영어가 가장 최근에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림 13> 14-3번 문항 응답률

학생들은 이에 대해 앞의 두 문항에 비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에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상관없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도 각각 16%와 8%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연관성에 '최근성'이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illiams & Hammarberg(1998)의 연구에서 학습자는 L3인 스웨덴어 이전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학습하였지만 이 학습자가 바탕언어로 독일어를 선택한 것은 가장 최근에 학습한 언어가 독일어였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3.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프랑스어 학습 이전에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L2는 영어가 유일하며 '최근성'을 기준으로 비교할 만한 다른 L2가 없었다. 그러므로 '최근성'이라는 요인과 영어를 결부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이 문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도록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14-3에 대한 프랑스어 이전에 다른 외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33명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매우 그렇다'가 37.5%, '약간 그렇다'가 37.5%로 전체 응답률과 비슷하였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15.6%, '전혀 그렇지 않다'는 6.25%로 전체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학생들에게도 영어가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최근에 배운 언어여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학생들은 영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언어가 형태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영어가 가장 최근 배운 외국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하여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내용의 제시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 대상의 학생들은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해 왔고 높은 공인 어학 성적을 가진 학생이 다수일 만큼 영어 능력이 우수하고 프랑스어 역시 짧은 시간에 높은 단계의 공인 어학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어와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두 언어 학습의 관련성에 대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의견들을 피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와 프랑스어가 유사한 어휘가 많고 문법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유사성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학습전략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비슷한 어휘나 문법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한 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14-1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다.

<표 20> 프랑스어와 영어의 문법과 어휘가 유사한 내용

번호	의견
1	문장 구조가 비슷해서 해석에 도움이 된다.
2	어원이 같기 때문에(라틴어 계열) 비슷한 문법 및 어휘가 많다.
3	문장 어순이 같고 영어 단어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이 많아 도움이 된다.
4	프랑스어를 하면 영어에서 고급 어휘를 쓸 수 있다.
5	영어에서 고급단어가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알면 도움이 된다.
6	영어의 발음이 프랑스어 어원이 많아 많은 도움이 된다.
7	같은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처음 배울 때 이질감이 없었다.
8	어휘가 비슷해서 영어 뜻을 생각하며 암기하면 편하다.
9	비슷한 어휘가 많아 영어 단어가 프랑스어 단어의 뜻을 유추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10	사전에서 프랑스어 단어를 찾을 때 프·영 사전으로 찾으면 좀 더 문맥에 맞게 이해할 수 있다.
11	작문을 할 때 문법과 단어에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프랑스어 학습이 영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학습이란 점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프랑스어 학습도 외국어 학습이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하는 동안 익혔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 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14-2 문항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수 있다.

<표 21> 프랑스어와 영어의 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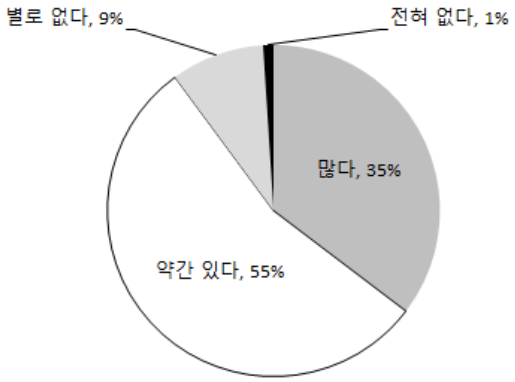
번호	의견
1	공부 방법(영어 공부 할 때의 받아쓰기나 원서읽기)이 비슷해서 도움이 된다.
2	영어를 공부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익히는 방법과 요령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가 도움이 되는 이유로 앞에서 제시한 요인들이 실제 학습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개별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와 영어가 어원이 같은 어휘가 많고 특히 영어의 고급 어휘들이 프랑스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언어 지식과 영어 학습을 통해 습득한 학습전략을 어휘 학습뿐만 아니라 발음과 작문 등의 프랑스어 전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L3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L2와 L3의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한국 학생들의 L2가 대부분 영어인 점을 고려하여 L2 능력에 따른 L3에서의 영향력의 차이보다는 일반적인 영어 능력과 프랑스어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영어를 잘하게 될수록 프랑스어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절반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도 대부분 '약간 그렇다'(43.43%)에 응답을 한 것을 볼 때 영어와 프랑스어 능력의 상관관계에서 L2 영어 능력의 편차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 영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프랑스어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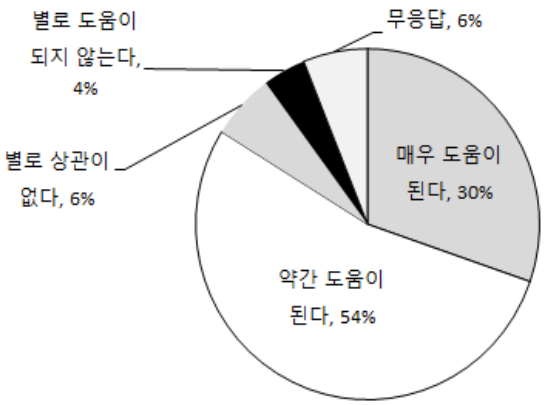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동안 받은 프랑스어 수업에서 이러한 영어와의 관련성이 고려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14> 영어와 관련한 프랑스어 수업 경험의 유·무

<그림 14>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존의 프랑스어 수업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영어와 관련지어서 설명한 프랑스어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 1명인 것으로 보아 프랑스어 수업에서 영어와 연관시켜 교수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2와 L3가 언어학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사성을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인데 이 때 교사가 프랑스어 수업을 영어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학습자는 보다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이 혼자 자율적으로 공부할 때에도 영어를 프랑스어 학습 전략

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도 과연 이러한 형태의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15> 영어 활용 수업의 효용성

<그림14>와 <그림15>에서 보듯이 영어와 관련된 프랑스어 수업의 빈도도 다양하였고 그것의 효용성에 대한 생각 또한 다양하였다. 경험이 많았지만 약간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한 수업의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 그래서 수업의 빈도와 효용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상위 세 개 항목의 응답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표 22> 영어와 관련한 프랑스어 수업의 빈도와 효용성의 관계

빈도 / 효용성	많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매우 도움이 된다	20.20	10.11	0.00
약간 도움이 된다	14.14	38.38	1.01
별로 상관이 없다	1.01	2.02	2.02

영어 관련 수업의 빈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프랑스어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빈도가 낮을수록 프랑스어 학습에서의 효용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22>의 음영 부분은 수업의 빈도와 효용성에 대하여 일치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응답이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와 관련지어 프랑스어 수업을 들은 경험의 빈도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비례한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영어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프랑스어 수업에 많이 노출될수록 프랑스어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적게 노출될수록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10년 전후라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영어 지식과 언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또한 학습전략적인 측면에서 영어와의 관련성을 잘 파악하여 프랑스어 수업에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는 여러모로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제2외국어교육의 실정을 생각한다면 영어 지식을 활용한 프랑스어 수업은 짧은 시간에 프랑스어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고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6) 소결

이상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설문 결과가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의 대상자들은 L3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L2 영어 학습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도움이 컸으며 가장 도움이 된 영역은 어휘 영역이었고 새로운 프랑스어 어휘를 만났을 때 영어 어휘로부터 발음과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영어가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로는 영어가 프랑스어와 형태적으로나 음성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언어이고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이면서 가장 최근에 배운 외국어라는 사실을 들었다. 실제 프랑스어 수업에서도 이러한 연관관계를 이용한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수업이 프랑스어를 습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프랑스어를 스스로 학습할 때에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프랑스어 수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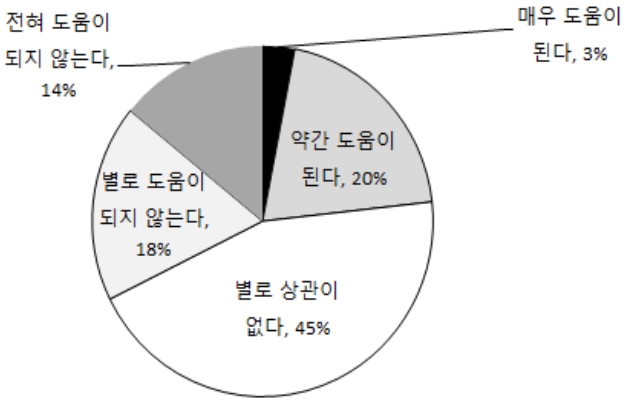
3.3.3.2.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상관관계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은 대체로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두 언어 학습이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응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다고 하여 구체적인 상관관계의 내용을 묻는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어와 관련된 설문 분석은 설문에 응한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프랑스어 학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프랑스어를 학습하는데 이전의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에 4분의 3의 학생들은 두 언어의 학습이 '별로 상관이 없다'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6> 프랑스어 학습에 대한 한국어 학습의 영향

긍정적인 응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를 합한 응답률은 23.23%로 이는 <그림9>에서 94.95%의 학생들이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상관관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시기

한국어 학습 경험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시기에 대해서는 38.38%의 학생이 '프랑스어 초급 단계'라고 응답하였고 12.12%의 학생이 '프랑스어 중급 단계'라고 응답하였으며 '프랑스어 고급 단계'라고 응답한 학생도 2명 있었다.

<표 23>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가 도움이 된 시기

프랑스어단계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무응답
비율(%)	38.38	12.12	2.02	47.47

프랑스어 단계가 높아질수록 한국어에 도움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며 한국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프랑스어 초급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의 경우 한 명도 없었던 '프랑스어 고급 단계'에서 한국어가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2명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어가 프랑스어 고급단계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존재한다는 것은 L3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에 L1인 한국어의 역할이 L2인 영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프랑스어 고급 단계에서의 도움인 만큼 언어학적인 도움보다는 다른 성격의 도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과 프랑스어 학습이 '별로 상관없다'라고 답한 학생들 중 절반의 학생들도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된 시기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들의 응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어 학습이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도움이 되는 시기를 기

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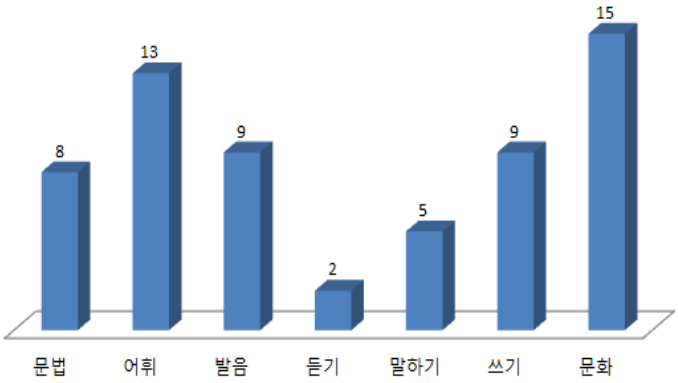
<표 24>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의 영향과 시기

시기 / 영향력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무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	2		1	
약간 도움이 된다	12	7	1	
별로 상관이 없다	20	3		
합계 (명)	34	10	2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프랑스어 초급 단계'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24>의 음영 부분은 '프랑스어 초급 단계에서 도움이 되었다'와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이 별로 상관없다'에 공통으로 응답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한국어가 프랑스어 초급 단계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프랑스어 학습과 상관관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3)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영역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된 영역에 대해서는 복수의 응답이 가능하였는데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응답하였다.



<그림 17>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된 영역

프랑스어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영역은 '문화'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결코 가깝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프랑스 '문화'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프랑스어 학습의 '문화' 영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학적 지식이나 특정한 언어권과 관련된 문화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을 하는 동안 습득하게 된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프랑스어 학습에서 '문화'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 볼 사항은 '발음' 부문에서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어 발음 학습에 어원과 형태가 상이한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일견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개별 의견을 살펴보면 '발음' 영역에서 한국어에서 받는 도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단어가 강세가 없고 'ami-아미' 'nouveau-누보'처럼 발음을 한국어로 옮겼을 때 프랑스어 어휘의 원래의 발음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프랑스어 어휘를 처음 접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또한 언어학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쓰기'와 '말하기'에서도 한국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때 학생들은 언어학적 도움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가지게 된 풍부한 사고 능력과 지식이 '쓰기'와 '말하기'에서 좋은 소재와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되는 이유

번호	의견
1	한국어를 모르면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다.
2	발음이 미국 영어가 아닌 한국 발음에서 발음 하는 것이 더 나아서.
3	기초 언어(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공부가 가능했던 점.
4	말하기를 할 때 한국어로 아는 지식이 풍부하다면 말할 주제가 많아지고 소재가 다양해진다.

요약하자면, 프랑스 학습에 있어서 한국어로부터는 학습에 필요한 메타언어적인 도움과 고양된 문화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4)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이유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이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원인을 규명해 보기 위하여 영어에서와 유사하게 문항을 구성하였지만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하여 영어와의 관련성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비슷한 어휘나 문법이 많기 때문에'라는 문항으로 질문하였지만 한국어는 프랑스어와 형태적 유사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고 유사한 문법이 많기 때문에'로 바꾸어 질문하였다. 또한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 학습도 외국어 학습이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하는 동안 익혔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 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를 '한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로 수정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영어가 가장 최근에 배운 언어이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로 질문하였다. 20-1은 '언어적 유사성', 20-2는 '메타언어 의식', 20-3은 '최근성'과 관련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한국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20. 다음은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세요.
20-1. 한국어에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고 유사한 문법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20-2. 한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20-3.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하거나 쓸 때 한국어를 참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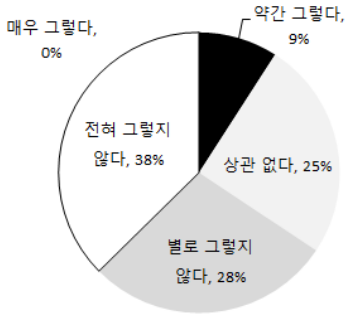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 학습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묻는 세 개의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 가운데 긍정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매

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하나로 묶어서 비율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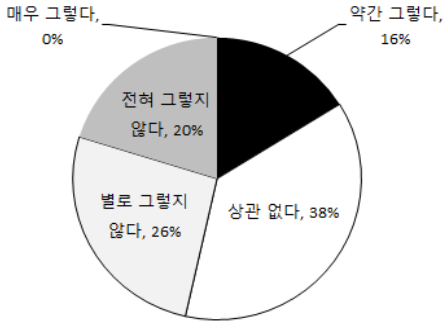
<표 27> 20번 세부 문항 긍정적 응답률

문항 번호	20-1	20-2	20-3
응답률(%)	9.09	16.16	3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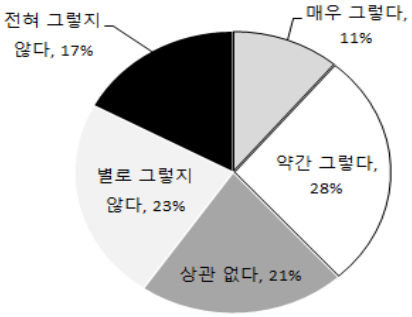
세 문항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 이는 학생들이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연관성 자체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세 문항의 응답률을 정리해 보면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성', 그 다음은 '메타언어 의식'이었고 '언어적 유사성'이 가장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는 한국어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한국어 학습을 통해 익힌 학습 방법이나 지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 학습에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부 문항 각각의 응답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8> 20-1번 문항 응답률



<그림 19> 20-2번 문항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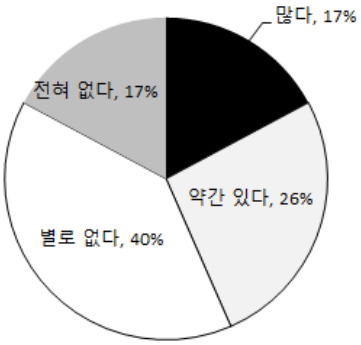


<그림 20> 20-3번 문항 응답률

세부 문항 분석에서도 '매우 그렇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최근성'과 관련된 20-3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언어적 유사성'과 관련된 20-1이었다. 20-2의 '메타언어 의식'에 대해서는 16.16%가 '약간 그렇다', 37.37%가 '상관 없다'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번 문항의 설문 결과를 통해 한국의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학습할 때 한국어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프랑스어를 잘 하게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80%가 넘는 학생들이 '상관없다',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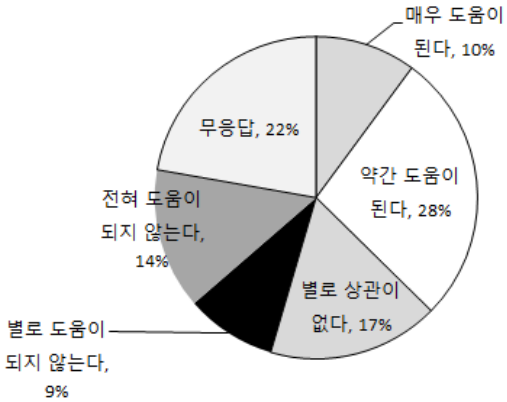
5) 한국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프랑스어 수업

기존의 프랑스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국어와 관련지어 프랑스어를 배운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식의 수업을 받은 경험이 '많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7.17%, '약간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6%였으며 40%의 학생이 '별로 없다'로 응답하였고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17%에 이르렀다.



<그림 21> 한국어 활용 프랑스어 수업 경험

또한 그러한 수업이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척도에 대해서도 비교적 고르게 응답하였다.



<그림 22> 한국어 활용 수업의 효용성

한국어와 관련지어 이루어진 프랑스어 수업의 빈도와 이러한 방식의 수업의 효용성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한국어와 관련한 프랑스어 수업의 빈도와 효용성의 관계

빈도 / 효용성	많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매우 도움이 된다	7	3	0
약간 도움이 된다	3	22	3
별로 상관이 없다	4	1	7

<표28>을 통해, 한국어와 관련한 프랑스어 수업의 빈도가 높을수록 효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효용성을 가장 크게 느낀 학생은 가장 많이 노출된 학생이었고 노출 빈도가 중간인 학생은 효용성에 대해서도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노출 빈도가 낮은 학생은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어 수업에서 한국어와 연관 지어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실제 수업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소결

이상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의 대상자들은 제3언어로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한국어 학습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둘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 도움이 되었고 가장 도움이 된 영역

은 '문화' 영역이었다고 답하였다.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원인으로는 한국어가 현재 사용하는 언어이고 메타언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한국어와 연관되어 문법 설명을 하거나 어휘를 설명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업을 받은 경우 프랑스어 수업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프랑스어 수업을 설계할 때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3.3. 설문 조사 분석 정리

설문 조사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의 영어와 한국어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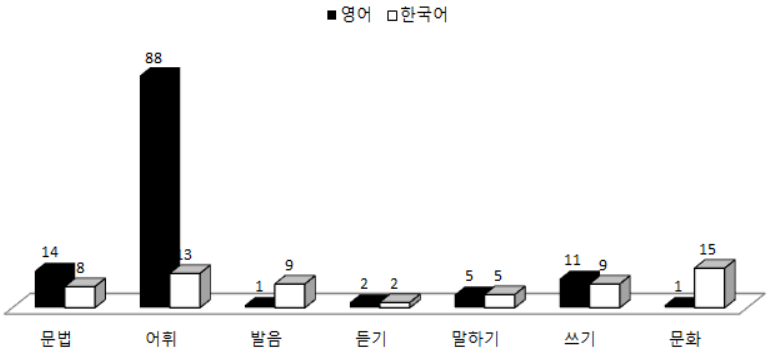
한국인 학습자의 L3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 L1 한국어와 L2 영어는 모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도와 내용은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생들은 프랑스어 학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영어는 94.95%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한국어는 22.23%의 학생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시기에 대하여 영어는 초급단계 54.55%, 중급단계 45.45%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어는 초급단계 38.38%, 중급단계 12.12%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Hammarberg(2001)는 L3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는 L1보다 L2가 활성화된다고 하였는데[46] 설문 결과 역시 프랑스어 초급단계에서도

46) "… there appears to be a general tendancy to active an earlier secondary language in L3 performance rather than L1." (Harmmarberg 2001:23)

중급 단계에서도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언어는 L2 영어였다. 이는 영어가 학생들의 L2라는 사실 이외에 학생들이 L3를 처음 접할 때 이미 상당한 수준의 L2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L2와 L3의 언어학적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메타언어 지식을 가진 나이이기 때문에 L1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Hammarberg(2001)는 L3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L1과 L2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국어가 프랑스어 중급단계에서보다 특히 초급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한편, 프랑스어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에서 비슷하게 응답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은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프랑스어 초급단계에서 도움이 되었고 고급단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였다. 프랑스어 능력이 고급단계에 이르면 영어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언어에 대한 의존도가 사라질 것인데 한국어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어의 도움이 언어학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언어가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영역의 분포도 상당히 양상이 달랐다. 우선 '어휘'가 압도적이었고 다른 영역의 영향은 미미하였던 영어의 경우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응답하였다. 응답이 높은 영역을 순서대로 보면 영어는 '어휘 > 문법 > 쓰기 > 말하기 > 듣기 > 발음 >문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어는 '문화 > 어휘 > 발음=쓰기 > 문법 > 말하기 > 듣기'의 순으로 나타나 영역별 순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를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 영역(영어와 한국어)

프랑스어 문화권이 한국어 문화권보다는 영어 문화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영역에서 한국어의 도움이 더 컸다고 응답(한국어:영어=15명:1명)한 것과 프랑스어와 어원과 형태가 상이한 한국어 학습이 '발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영어와 한국어가 프랑스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영어와 한국어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었는데 영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던 '언어 유형의 유사성'은 한국어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이다'라는 항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메타언어 의식'이었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한국어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한국어 학습을 통해 익힌 학습 방법이나 지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 학습에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L3 프랑스어 습득 과정에서 L1 한국어는 프랑스어 학

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메타언어적인 역할을 하였고 L2 영어는 언어학적으로 프랑스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가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동안 영어 학습을 통해서는 프랑스어와의 형태적, 음성학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언어학적 도움을 받는 반면 한국어 학습을 통해서는 언어 학습에 필요한 메타언어적인 도움과 고양된 문화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답한 99명의 학생의 성비는 남:여=14:85로 심하게 불균형이어서 성별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성별을 분리하여 연구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이 학생들이 대부분 프랑스어를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처음 접하였고 현재 거의 비슷한 연령이라는 점 때문에 나이에 따른 연구도 분리하여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4.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수업 방안

3장을 통하여 한국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경험적으로 이러한 언어들 간의 상관관계가 고려된 프랑스어 수업이 학습에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학습자들을 위한 제3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수업에서 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1언어인 한국어와 제2언어인 영어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수업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프랑스어와 영어의 연관성을 고려한 수업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의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어휘, 문법, 쓰기, 말하기, 듣기, 발음, 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응답이 가능한 설문 문항이었는데 학생들은 '어휘'와 '문법' 영역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하였으며 '쓰기', '말하기', '듣기', '발음'에서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 역시 프랑스어와 영어가 '어휘'와 '문법'에서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래서 영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프랑스어 수업의 설계를 '어휘'와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1) 어휘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언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어휘 목록을 최대한 확장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L2가 L3와 언어학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학습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어휘들을 습득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외국어를 L2로 접하는 학습자들과 달리 이들은 이미 획득한 L2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프랑스어 권장 어휘 가운데 영어와 관련된 어휘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7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프랑스어 기본 어휘' 1,017개를 조사해 보았다. 철자 A로 시작하는 75개의 어휘 가운데 'absent', 'accident', 'attention'처럼 영어와 철자가 완전히 같은 어휘는 20개, 'adresse', appartement', 'ancien'처럼 영어와 철자가 하나만 다른 어휘는 9개였으며 어간이 같은 어휘는 'accepter', 'aider', 'amuser', 'arriver' 4개였다. 전체 75개의 어휘 중 44%에 달하는 33개의 어휘가 그에 상응하는 영어 어휘를 안다면 철자만으로도 충분히 뜻을 알 수 있는 어휘들이었으며 'aéroport', 'allô', 'automne'처럼 발음을 들려주었을 때 영어에서 유사한 어휘를 유추할 수 있는 어휘들까지 포함한다면 학습자 스스로 사전의 도움 없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휘의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2007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프랑스어 기본 어휘' 가운데 영어와 연관된 어휘를 '영어와 철자가 완전히 같은 어휘', '영어와 철자가 하나 혹은 둘 다른 어휘', '영어와 어간이 같은 어휘'로 분류해 보면 그 분포는 <표29>와 같다(기준별 세부 어휘 목록은 【부록 1】 참조).

<표 29> 어휘 목록 중 영어와 관련된 어휘의 수

기준	수량(개)	비율(%)
영어와 철자가 완전히 같은 어휘	276	27.14
영어와 철자가 하나 혹은 둘 다른 어휘	142	13.96
영어와 어간이 같은 어휘	66	6.49
소계	484	47.59

* 비율은 전체 1,017개의 어휘에 대한 비율임.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017개의 어휘 중 47.59%에 달하는 총 484개의 어휘가 영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철자가 동일한 프랑스어 어휘와 영어 어휘가 문법범주나 의미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dorer’ 와 ‘amuser’는 프랑스어에서는 동사이지만 영어에서는 명사이다. 또한 ‘bruit’는 프랑스어에서는 명사이지만 영어에서는 동사이다. 그리고 ‘blesser’는 영어에서 ‘축복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상처를 입(히)다’를 의미하며 프랑스어의 ‘빵’을 의미하는 ‘pain’은 영어에서는 전혀 다른 ‘고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어 어휘와 관련하여 프랑스어 어휘를 교수·학습할 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고려가 있어야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이러한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여 프랑스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L3 학습자는 L2 학습에서 익힌 학습전략을 자연스럽게 L3 학습에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어휘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략은 바로 ‘추론하기’이다. 윤미경(2008:80)은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도 역시 영어 학습에 사용하였던 학습 전략을 프랑스어 학습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며(10개의 학습 전략 중 8개)[47] 프랑스어 학습 전략

을 사용할 때 프랑스어 낱말과 비슷한 영어 낱말을 찾거나 알아차리는 '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낯선 프랑스어 어휘를 접한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프랑스어 어휘나 영어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2007 교육과정에 제시된 프랑스어 어휘들은 초급 단계를 위한 어휘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쉬운 수준의 어휘들인데 반해 학생들의 영어는 프랑스어보다는 높은 수준이므로 학생들은 영어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프랑스어 기본어휘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어 어휘와 영어 어휘와의 이러한 상관관계와 학생들의 학습 조건을 고려하는 프랑스어 어휘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학생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자.[48]

다음은 '길 찾기'와 관련된 교과서 *Soyons amis*의 한 페이지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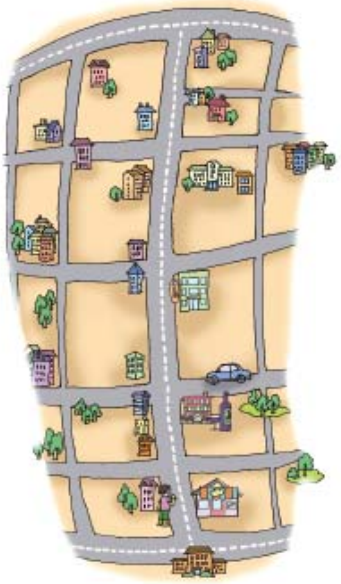
47)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통의 사용빈도 전략 8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업 시간에 교사가 들려주는 프랑스어(영어)를 집중해서 듣는다. ② 영어로 된 글이나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기사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③ 교사가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교사의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한다. ④ 배우는 새 단어나 표현들을 공책에 써보면서 노트한다. ⑤ 새로운 프랑스어(영어) 단어의 발음과 그 단어가 연상되는 이미지를 연결시켜 외운다. ⑥ 상황이나 문장의 알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추측한다. ⑦ 프랑스어(영어)로 표현할지 모를 때 친구나 교사 또는 영어권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⑧ 내가 말한 프랑스어(영어)가 정확한지 확신하지 못할 때 내가 대화하는 상대에게 내가 바르게 말했는지 확인한다.

48) 이하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한 외국어 계열 고등학생들을 위한 기초 프랑스어 교재, 김언자 외(2011), *Soyons amis*, ㈜천재교육'을 참조하였다.

Écoutez et répétez

Sémi au téléphone

Sémi Je suis en face de la boulangerie. C'est loin d'ici ?
Marie Non, non. C'est à 5 minutes. Alors, traverse la rue et marche tout droit.
Sémi Oui.
Marie À ta droite, il y a un magasin de vin. Passe devant et continue encore un peu.
Sémi Et après ?
Marie Tu vois la banque, et après, le lycée français. Ma maison est juste à côté.
Sémi D'accord. J'arrive tout de suite.



face, boulangerie, loin, minute, marcher, droit(e), traverser, rue, vin, passer, devant, continuer, après, voir, banque, côté, arriver, tout de suite

58 cinquante-huit

<그림 24> 영어와 관련된 프랑스어 어휘의 교과서 예시

<그림24>에서 보듯이 교과서는 현재의 페이지를 학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 나온 어휘를 하단에 수록하고 있다. 기존의 수업은 이 어휘들을 배우기 위하여 흔히 원어민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거나 교사가 직접 읽고 학생들에게 따라 읽도록 한 뒤 뜻을 물어보거나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 18개의 어휘는 학생들에게 모두 새롭게 외워야 하는 것으로서 학습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하지만 이 새로 나온 어휘를 자세히 살펴보면 44.4%에 달하는 8개

의 단어가 영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face’와 ‘minute’는 영어와 철자가 동일하고 동사 ‘marcher’, ‘traverser’, ‘passer’, ‘continuer’, ‘arriver’는 영어와 어간이 같다. 이러한 어휘들의 경우, 교사가 먼저 뜻을 알려주지 않고 영어와 연결시켜 보도록 제안만 하더라도 사전이나 문맥의 도움 없이 쉽게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anque’는 발음을 들려준다면 충분히 의미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어휘들이 단지 영어를 통한 추론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어 어휘 학습에 영어와의 추론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학습 전략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은 학습자가 추론 가능성을 인지하고 추론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에 대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론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프랑스어 어휘를 익히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문법

학생들은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가 두 번째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문법’을 들었다. 모국어에는 없는 L3의 통사구조를 L2에서 경험한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L3 습득에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훌륭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어 학습 초기에 배우게 되는 문법 사항 중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관사’의 용법이다. 이는 한국어에 없

는 용법이기 때문인데 이 때 영어의 '관사' 용법과 연결시켜 설명한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하여 관계절을 구성하는 방식도 프랑스어는 한국어와는 다르지만 영어와는 같은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프랑스어 문법 가운데 영어 문법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요소를 '기초 프랑스어' 교재에서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0> 프랑스어와 영어의 유사한 문법 사항

문법 사항	프랑스어	영어
타동문	• J'aime ma nouvelle maison. • Elle le trouvait gentil et généreux.	• I like my new house. • She thought him nice and generous.
비인칭 구문	• Il neige. • C'est lundi. • Il est cinq heures.	• It snows. • It's Monday. • It's five o'clock.
관사	• C'est **un** livre. • C'est **le** livre de Jimi.	• This is **a** book. • This is **the** book of Jimi.
비교급 최상급	• L'avion est **plus** rapide **que** le train. • Ce restaurant est **le** meilleur **du** quartier.	• The plane is fast**er** **than** the train. • It's **the** best restaurant **in** the area.
강조 구문	• **C**'était trois semaines plus tard **qu**'il a entendu les nouvelles	• **It** was three weeks later **that** he heard the news

관계 대명사	• Il est le seul **qui** puisse jouer cette sonate. • Je cherche une robe **que** je peux porter pour sortir.	• He is the only one **who** can play this sonate. • I am looking for a dress **that** I can wear out.
수동태	• Les timbres m'ont **été envoyés par** mon ami du Canada.	• The stamps **were sent** to me **by** my friend from Canada.
부사 만들기	• L'affaire s'est terminée heureuse**ment**.	• The case ended **happily**.
가정법	• **Si** tu travailles bien, tu **pourras** réussir au concours.	• **If** you work well, you'll be successful in the competition.

이 외에도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더 많은 문법 요소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수나 협동 연구를 통하여 수준별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자료의 목록과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다면 실제 수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영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프랑스어 수업의 효용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프랑스어 어휘와 문법을 영어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프랑스어 학습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영어 학습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므로 앞으로의 프랑스어 수업에서 영어와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과 교수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2.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을 고려한 수업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의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문화, 어휘, 발음, 쓰기, 문법, 말하기, 듣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은 특정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 영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는데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유형학적으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학습의 각 영역에서 한국어가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어의 메타언어로서의 역할 때문이었다. '문화' 영역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점과 연관된 것이므로 한국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프랑스어 수업의 설계를 메타언어, 그리고 설문 조사 결과의 상위 두 영역인 '문화'와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1) 메타언어

외국어 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원어로 하는 수업에 관한 것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외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배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외국어로만 수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영어 원어 수업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고 원어 강좌가 대학평가에서 주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어 수업이 과연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Williams & Hammarberg(1998)는 L3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L3 초급 단계와 중급단계에서는 '공급자 역할'의 언어보다는 '도구적 역할'

의 언어가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즉, 이 단계에서는 발화자가 L3의 단어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화자의 생산물에 대해 코멘트를 해 주는 언어가 활성화된다는 것인데 이 언어는 발화자와 대화자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라야 한다. Trévisiol(2006)과 Lindqvist(2009)는 이전에 획득한 언어에서 차용하는 것은 언어 능력의 중급 단계까지 개입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바탕언어에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언어내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이 고급 단계이면 외국어로 수업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메타언어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접근이 가능한 언어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어 수업은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어고 프랑스어 전공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원어민이 프랑스어로 진행하는 '회화' 수업을 듣게 되는데 프랑스어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국인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을 하면서 학습을 도와주는데 이러한 한국인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프랑스어 능력이 발전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대개 한 학기 정도 지나면 학생들 스스로 원어민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프랑스어 초급 혹은 중급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학습자를 위한 프랑스어 수업은 원어로만 하기 보다는 수업의 내용은 프랑스어로 하되 수업의 진행에 필요한 메타언어는 한국어로 하는 것이 실제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설문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모르면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어 수업에 있어서 메타언어로서의 L1인 한국어의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프랑스어 수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프랑스어로

하는 수업이 가장 훌륭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맞게 L3 프랑스어와 L1 한국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프랑스어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 문화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가 도움이 가장 크게 되었다고 응답한 영역은 '문화'였다. <표25>에서 한국어가 도움이 되는 이유를 '말하기를 할 때 한국어로 아는 지식이 풍부하다면 말할 주제가 많아지고 소재가 다양해진다.'라고 기술하였듯이 한국어는 프랑스어 학습에서 '문화'와 관련된 내용과 활동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화'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문화의 전반에 대한 깊이 있고 해박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기초 프랑스어'는 16개로 이루어진 unité의 마지막에 'Découvrez la culture'라는 제목 하에 '문화'를 따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프랑스인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족생활, 주거 양식, 직업, 학교 제도, 여가 생활, 날씨와 계절, 초대와 방문하기 등으로 프랑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수업을 프랑스에 대한 이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성찰로 이어지게 한다면 학생들은 프랑스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는 프랑스의 입시 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3) 프랑스 학생들은 바칼로레아라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통해 다양한 고등교육 단계로 진입합니다. 다음은 바칼로레아의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계열구분과 비교해 봅시다.

Bac S	scientifique
Bac ES	économique et social
Bac L	littéraire
Bac STG	science et technologies de la gestion
Bac STI	science et technologies industrielles
Bac STL	science et technologies de laboratoire
Bac ST2S	science et technologies de la santé et du social

cent soixante-treize 173

<그림 25> 교과서의 바칼로레아에 대한 활동

위의 활동은 단순히 두 나라 입학시험의 계열구분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사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시험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의 내용, 준비 과정, 대학 입학에서 가지는 비중, 대학 진학 비율,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때의 진로 등등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꿔 볼 수 있다.

· 프랑스의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어떻게 될까요?
· 프랑스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 프랑스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어떻

게 하고 있을까요?

· 바깔로레아 문제의 구성을 알아봅시다.

· 바깔로레아의 응시율과 합격률을 알아봅시다.

· 올해의 바깔로레아 문제를 알아보고 같이 토론해 봅시다.

특히, 바깔로레아 문제는 보편적인 진리나 당대의 사회상과 관련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들로 토론할 기회를 갖는다면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어휘

언어학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어휘'에 도움이 된 것은 한국어 안에 프랑스어 차용어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프랑스어 어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일부의 목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한국어 일상생활 속의 프랑스어 어휘

뉘앙스(nuance)	까페오레(café au lait)	뷔페(buffet)
랑데부(rendez-vous)	베테랑(vétéran)	앙팡(enfant)
부티크(boutique)	카페테리아(cafétéria)	데셍(dessin)
쿠데타(coup d'Etat)	앙케트(enquête)	쟝르(genre)
팡파레(fanfare)	메뉴(menu)	씨네마(cinéma)
레스토랑(restaurant)	파라솔(parasol)	실루엘(silouette)
바캉스(vacances)	데뷔(début)	데자뷔(déjà-vu)
에티켓(étiquette)	데칼코마니(décalcomanie)	

이러한 어휘들 가운데 상당수는 프랑스어인지 모른 채 사용되기도

하는데 프랑스어 학습 초기에 이러한 어휘들을 찾아보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매우 친근감을 느끼고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과서 *Soyons amis*의 한 페이지를 예로 들어 보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 풀이 활동에서 보기로 제시된 어휘 가운데 crêpe, baguette, sandwich, café, rouge, champagne는 이미 차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이며 gâteau는 점점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는 어휘이다. 이 어휘들은 교사가 일상생활 속의 어휘들과 연결시켜 주기만 한다면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는 어휘들이다.

Ⅱ 잘 듣고 손님의 대답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 봅시다.

(1) ⓐ une crêpe ⓑ un gâteau ⓒ une baguette
(2) ⓐ un sandwich au fromage ⓑ un sandwich avec un café
ⓒ un sandwich avec du chocolat
(3) ⓐ une bouteille de vin blanc ⓑ une bouteille de vin rouge
ⓒ un verre de champagne
(4) ⓐ six ⓑ sept ⓒ dix

<그림 26>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 생활 속의 프랑스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프랑스어 학습에 더욱 큰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보다 쉽게 프랑스어 어휘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프랑스어 학습 요소들을 영어와 한국어와의 관련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지나치게 연관성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영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학습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일으켜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한 수업이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만큼 교사가 프랑스어 수업을 설계할 때 항상 전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연구하고 수업에서 실행한다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제3언어 습득의 틀 안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 학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제3언어 습득은 제2언어 습득과 질적으로 다르고 제3언어 습득 과정에 제1언어인 모국어와 이전에 학습한 제2언어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언어 습득에 있어서 제1언어와 제2언어 중 어떤 언어를 바탕언어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학습자의 상황과 학습 맥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제3언어와의 언어학적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L3인 프랑스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L2로서 영어를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어와 영어는 어휘나 문법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언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예상은 본 연구의 객관적인 성적 분석과 주관적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학생들의 프랑스어와 영어의 학교 내신 성적과 영어 공인 어학 시험인 Teps와 프랑스어 공인 어학 시험인 Delf의 성적을 비교한 결과 두 경우 모두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편차는 있었지만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프랑스어 성적이 우수한 그룹은 영어 성적이 반드시 우수하였고 프랑스어 성적이 낮은 그룹은 영어 성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과목을 국어와 수학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프랑스어 학습은 영어 학습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두 언어 학습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프랑스어

와 영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언어학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L3 습득 과정에서 L1과 L2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L1 혹은 L2 가운데 어떤 언어는 L3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고 어떤 언어는 그러한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의사소통 상황을 관리하고 설명하고 논평하는 메타언어적인 역할만 하였다. 한국인 학습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L1인 한국어와 L2인 영어가 L3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이전의 영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휘와 문법 영역에서의 도움이 압도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L3 프랑스어 습득 시 영어로부터 언어학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모국어인 한국어로부터는 어휘, 문법과 같이 언어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프랑스어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입되는 메타언어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어 수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프랑스어 학습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제3언어 학습자들의 학습효과가 제2언어 학습자들에 비해 뛰어나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었다. 이는 제3언어 학습자는 제2언어 학습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메타언어 능력과 제2언어 학습에 사용한 학습 전략을 제3언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은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사춘기를 넘은 나이에 프랑스어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성숙하고 발달된 인지 구

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평균적으로 10년 안팎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영어 지식과 언어 학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언어적 유사성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프랑스어 학습에 스스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낯선 프랑스어 어휘를 접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어휘와의 유추를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였고 영어 학습을 통해 습득한 학습 전략을 문법, 발음, 작문 등 학습의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수업에서도 프랑스어와 영어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형식의 수업이 프랑스어 학습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프랑스어 교재를 제작하거나 프랑스어 수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프랑스어 학습 교재의 어휘부를 구성할 때 영어와의 추론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학생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할 뿐 아니라 학습 부담을 상당히 덜어 주어 학습 동기 유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의 경우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무리한 연계보다는 특정한 문법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수 활동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의 규칙과 형태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잘 활용하여 프랑스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학습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모국어인 한국어는 프랑스어와의 언어학적 유사성의 활용이 아니라, 문화나 제도 등을 소재로 한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를 통하여 프랑스어 학습에 대한 친근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프랑스어와 영어의 언어적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다면 프랑스어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 이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프랑스어와 영어의 유사성에 민감해지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전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수방법의 활용은 학생들이 스스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프랑스어를 경제적으로 가르쳐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프랑스어 교사들에게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Bibliographie

김언자 외 (2011) *Soyons amis*, ㈜천재교육.

유말희 (2006) '프랑스어교육을 위한 영어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프랑스어문교육』(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vol. 21, 27-44.

윤미경 (2008) 『고등학생의 프랑스어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 영어 학습전략과 대조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유현 (2011) 『한국인 학습자의 제3언어 습득에 제2언어가 미치는 영향: 영어와 독일어의 거짓 짝(false cognates)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재현 (2010) *The influence of previous experience of learning a typologically similar second language on the acquisition of korean as a third language*,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주소정 (2012) 『영어 학습이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Kim, Jong-Myung (2006) 'Apprentissage du français à l'aide de l'anglais', 『프랑스문화연구』(한국프랑스문화학회), vol. 13, 561-584.

Bardel, C. (2006) 'La connaissance d'une langue étrangère romane favorise-t-elle l'acquisition d'une autre langue romane ? : Influence translinguistique dans la syntax en L3',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24,* 149-179.

Beltrán, R. C. (2006) 'Towards a typological classification of false

friends(Spanish-English)',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Aplicada/Spanish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RESLA/SJAL),* vol. 19, 29-39.

Bernard, J. & Grandcolas, B. (2001) 'Apprendre une troisième langue quand on est bilingue : le français chez un locuteur anglo-espagnol',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14,* 111-133.

Bérubé, D. & Marinova-Todd, S. H. (2011)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nd reading skills in the second and third languages of multilingual children in french immersion', *Internatio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vol. 9, n° 3, 272-293.

Bérubé, D. & Marinova-Todd, S. H. (2013) 'The effect of sociolinguistic factors and english language profiency on the development of french as a third language', *Internation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vol. 17, n° 4, 465-483.

Bono, M. (2006) 'La compétence plurilingue vue par les apprenants d'une L3 : le plurilinguisme est-il toujours un atout ? ', *Education et Sociétés Plurilingues 20*, 40-50.

Bono, M. (2007) 'La comparasion L2-L3, un tremplin vers l'acquisition trilingue', *Birkbeck Studies in Applied Linguistics 2,* 22-41.

Brohy, C. (2003) 'Generic and/or specific advantages of bilingualism in a dynamic plurilingual situation : The case of French as official L3 in the school of Samedan(Switzer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vol. 4, n° 1, 38-49.

Cenoz, J. & Genesee, F. (1998) 'Psycholinguistic perspectives on multilingualisme and multilingual education', *Beyond bilingualism,* Multilingual matters ltd, 16-32.

Cenoz, J. (1997) 'L'acquisition de la troisième langue : bilinguisme et plurilinguisme au pays basque',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10,* 159-175.

Cenoz, J. (2001) 'The effect of linguistic distance, L2 status and age on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In : J. Cenoz, B. Hufeisen, U. Jesser(eds.),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Psychological Perspectives),* Multilingual matters ltd, 8-20.

Cenoz, J. (2003) 'Facteurs déterminant l'acquisition d'une L3 : Âge, développement cognitif et milieu',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18,* 38-51.

Cenoz, J., Hufeisen, B. & Jessner, U. (2010) 'Toward Trilingu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vol. *4,* n° 1, 1-10.

Cummins, J. (1976) 'The Influence of Bilingualism on Cognitive Growth :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and Explanatory Hypothese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n° 9, 1-43.

Cuq, J. P. & Gruca, I. (2009) *Cours d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Gémenos :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De Angelis, G. & Selinker, L. (2001) 'Interlanguage transfer and

competing linguistic systems in the multilingual mind', In : J. Cenoz, B. Hufeisen, U. Jesser(eds.),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Psychological Perspectives),* Multilingual matters ltd, 42-58.

Dewaele, J. M. (1998) 'Lexical Inventions : French Interlanguage as L2 versus L3', *Applied linguistics,* vol. 19, n° 4, 371-490.

Dewaele, J. M. (2001) 'Activation or Inhibition? The interaction of L1, L2 and L3 on the language mode continuum', In : J. Cenoz, B. Hufeisen, U. Jesser(eds.),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Psychological Perspectives),* Multilingual matters ltd, 69-89.

Esch, E. (2003) 'L'acquisition trilingue : recherches actuelles et questions pour l'avenir', *Le francais dans le monde*, 18-31.

Flynn, S., Foley, C. & Vinnitskaya, I. (2010) 'The cumulative-enhancement model for language acquisition : Comparing adults' and children's patterns of development in first, second and third languag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vol. 1, n° 1, 3-16.

Galisson, R. (1980) *D'hier* à *aujourd'hui la didactique des langues étrangères : du structuralisme au fonctionalisme,* Clé international.

Grosjean, F. (1998) 'Studying bilinguals :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issues', *Bilingualism : Language and Cognition* 133-149.

Hammarberg, B. (2001) 'Roles of L1 and L2 in L3 production and

acquisition', In : J. Cenoz, B. Hufeisen, U. Jesser(eds.),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Psychological Perspectives),* Multilingual matters ltd, 21-41.

Hammarberg, B. (2006) 'Activation de L1 et L2 lors de la production orale en L3: Étude comparative de deux cas',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24,* 45-74.

Henry, A. (2011) 'Examining the impact of L2 english on L3 selves : A case study', *Internatio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vol. 8, n° 3, 235-255.

Housen, A. (2002) 'Paramètres liés à l'environnement dans l'apprentissage guidé d'une langue seconde',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16,* 228-251.

Klein, E. C. (1995) 'Second versus third language acquisition : Is there a difference ? ', *Language learning,* vol. 45, n° 3, 419-465.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ergamon Press Inc.

Leung, Y. I. (2008) 'Second language(L2) English and third langue(L3) French article acquisition by native speakers of cantonese', *Internatio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vol. 4, n° 2, 117-149.

Lindqvist, C. (2009) 'The use of the L1 and L2 in french L3: examining cross-linguistic lexemes in multilingual learners' oral production', *Internatio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vol. 6, n° 3, 281-297.

Murphy, S. (2003) 'Second Language Transfer During Third

Language Acquisition', *Working Papers in TESOL & Applied Linguistics,* vol. 3, n° 1, 1-21.

Odlin, T. (1989) *Language transfer :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rquier, R. et al. (1991) *Grammaire et didactique des langues*, Hatier/Didier.

Rast, R. (2006) 'Le premier contact avec une nouvelle langue étrangère : comment s'acquitter d'une tâche de compréhension ? ',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24,* 119-147.

Ringbom, H. (2001) 'Lexical transfer in L3 production', In : J. Cenoz, B. Hufeisen, U. Jesser(eds.),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Psychological Perspectives),* Multilingual matters ltd, 59-68.

Ringbom, H. (2005) 'L2-Transfer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Introductory Readings in L3*, 71-82.

Singleton, D. & Ó Laoire, M. (2006) 'Psychotypologie et facteur L2 dans l'influence translexicale : Une analyse de l'influence de l'anglais et de l'irlandais sur le français L3 de l'apprenant',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24,* 101-117.

Smith, M. S. (1994) *Second language learning : theoretical foundations,* London : New York : Longman.

Tremblay, M. C. (2006)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 The Role of L2 Proficiency and L2 Exposure', *Cahiers Linguistiques d'Ottawa/Ottawa*

Papers in Linguistics, vol. 34, 109-119.

Trévisiol, P. (2006) 'Influence translinguistique et alternance codique en français L3 : Rôles des L1 et L2 dans la production orale d'apprenants japonais',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24,* 13-43.

Véronique, D. (2005) 'Les interrelations entre la recherche sur l'acquisition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la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 Quelques pistes de travail',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23,* 9-41.

Véronique, D. (2009) 'Classe lexicales et développement grammatical dans la variété de base des apprenants de français L2 et dans le développement des créoles français', *Acquisition et interaction en langue étrangère,* 228-251.

Williams, S. & Hammarberg, B. (1998) 'Language switches in L3 production : Implications for a polyglot speaking Model', *Applied linguistics,* vol. 19, n° 3, 295-333.

【부록 1】 영어와 관련된 프랑스어 어휘 목록

1. 영어와 철자가 완전히 같은 어휘

철자	어휘
A	absent, accident, accord, addition, adolescent, adorer, âge, ah, air, allocation, alors, amuser, animal, appetit, argent, art, attention, automobile, avenue, avion
B	baguette, bateau, beau, bijou, bise, blesser, blond, boisson, bonjour, boucherie, boulangerie, boulevard, bouteille, bravo, bruit, bureau, bus
C	café, cahier, camping, cassette, car, carafe, carnet, cathedrale, cause, cent, centre, certain, chambre, champagne, chance, chanson, chanteur, chapeau, chateau, chaussure, chef, chemin, chemise, chèque, cher, cinéma, client, collège, commencer, comment, concert, confiture, content, conversation, courage, cousin, cravate, crayon, crêpe, croissant, cuisine, culture
D	dame, date, début, degré, déjeuner, demi, départ, dessert, dessin, différent, direction, droit, droite
E	eau, école, encore, enfant, enfin, ensemble, équipe, étoile, étranger, euro
F	face, faible, félicitation, femme, festival, fête, fille, film, fils, foot, formidable, foyer, fromage, fruit, fumer
G	gallette, garçon, gâteau, général, génial, gens, gentil, glace, gorge, gourmand, goût, grâce, grand, grands-parents, grave, grippe, guichet, guide
H	habitude, haut, héros, homme, hôtel
I	important, impossible, information, instant, internet, invitation
J	jardin, jeu, joie, journal
K	kilo, kiosque
L	lieu, long

M	machine, madame, mademoiselle, magnifique, mairie, manifestation, match, mauvais, médicament, menu, message, métier, métro, milieu, million, minute, mode, moment, monsieur, monument, morceau
N	national, nature
O	oh, opéra, orange
P	page, pantalon, papa, pardon, parent, parfum, part, pâtissier, patron, pétanque, petit, photo, physique, piano, pizza, place, plage, plan, plus, police, pomme, portable, porter, pose, possible, postal, premier, présent, présenter, président, prix, problème, profession, promenade, province, pull
Q	quai, quartier, queue, question
R	radio, raisin, région, rendez-vous, réservation, restaurant, retard, révolution, rez-de-chaussée, robe, roman, rouge, route
S	sac, salade, salle, salon, sandwich, second, séjour, silence, simple, site, six, ski, soirée, souvenir, sports, stage, station, steak, suisse, surprise
T	table, tableau, taxi, téléphone, télévision, température, tennis, ticketthéâtre, tolérance, tort, tour, train, triste
U	utile
V	valise, vendange, vent, village, ville, visage, vite
W	week-end
Z	zéro, zoo

2. 영어와 철자가 하나 혹은 둘 다른 어휘

철자	어휘
A	acteur(actor), adresse(address), algérien(algerian), américain(american), ancien(ancient), anniversaire(anniversary), annonce(announce), appartement(apartment), avril(April)
B	banane(banana), banque(bank), bas(base), bifteck(beef steak), bleu(blue), brun(brown)

C	canadien(canadian), capitale(capital), carte(card), chaîne(chain), chocolat(chocolate), classe(class), classique(classic), coréen(Korean), couleur(color), cours(course)
D	danse(dance), décembre(December), délicieux(delicious), dentiste(dentist), département(department), dictionnaire(dictionary), difficile(difficult), dîner(dine), directeur(director), disque(disc)
E	économique(economic), employé(employee), envie(envy), erreur(error), est(east), européen(European), exacte(exact), examen(exam), exemple(example), exercice(exercise)
F	faculté(faculty), famille(family), faute(fault), février(February), forêt(forest), forme(form), frite(fry), futur(future)
G	gastronomie(gastronomy), groupe(group)
H	heure(hour), hexagone(hexagon), histoire(history), hôpital(hospital), hypermarché(hypermarket)
I	idée(idea), île(isle), informatique(informatics), italien(italian)
J	joli(jolly), journaliste(journalist), juin(June), juste(just)
K	kilomètre(kilometer)
L	langue(language), leçon(lesson), lettre(letter), liberté(leberty), librairie(library), ligne(line)
M	mai(May), marocain(Moroccan), mars(March), mathématique(mathematic), médecin(medicine), mètre(meter), moderne(modern), montagne(mountain), musée(museum), musique(music)
N	nationalité(nationality), nécessaire(necessary), nom(name), noméro(number), non(no), nord(north), novembre(November)
O	octobre(October), oncle(uncle), ouest(west)
P	papier(paper), parc(park), parisien(Parisian), pharmacie(pharmacy), pièce(piece), plat(plate), poste(post), professeur(professor), programme(program), progrès(progress), publicité(publicity)
Q	quart(quarter)
R	raison(reason), rapide(rapid), rentrer(return), repas(repast), répéter(repeat), réponse(response), riche(rich), riz(rice), rond(round)
S	saison(season), secrétaire(secretary), sécurité(security), septembre(September), soigner(soigne), soupe(soup), sportif(sportive), succès(success), super(superb), supermarché(supermarket), sûr(sure), sympathique(sympathetic)

T	tabac(tobacco), tante(aunt), toilette(toilet), tomate(tomato), tourisme(tourism), touriste(tourist), traditionnel(traditional), tranquille(tranquil)
U	université(university)
V	vacance(vacancy), vendeur(vendeuse), veste(vest), visite(visit)

3. 영어와 어간이 같은 어휘

철자	어휘
A	accepter(accept), aider(aid), amuser(amuse), arriver(arrive)
C	changer(change), commander(command), construire(construct)
D	danser(dance), décider(decide), demander(demande), descendre(descend), désirer(desire),
E	embrasser(embrace), emploi(employ), excuser(excuse), ennuyer(ennui), entrer(enter), envoyer(envoy), expliquer(explain)
F	fin(final), finir(finish), fort(force)
G	garder(guard), goûter(gout), gratuit(gratis)
H	habiter(habitat)
I	inquiéter(inquire), inscrire(inscription), inviter(invite), interdire(interdiction), intéresser(interest)
L	lever(levitate)
M	mal(malice), malade(malady), marcher(march)
O	obliger(oblige), occuper(occupy), offrir(offer)
P	pardonner(pardon), passer(pass), payer(pay), permettre(permit), personne(person), prier(pray), préférer(prefer), préparer(prepare), proposer(propose)
R	raconter(racontage), rester(rest), recevoir(receive), refuser(refuse), regarder(regarde), regretter(regret), reposer(repose), réserver(reserve), retourner(return), réveiller(reveille)
S	servir(serve)
T	téléphoner(telephone), terminer(terminator), traverser(traverse)
U	utiliser(utilize)
V	visiter(visit), vendre(vend)

【부록2】 설문지

본 설문 조사는 프랑스어를 학습 하는데 이전의 언어 학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일부입니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조사》

1. 성별 : □남 □여

2. 지금까지 어떤 외국어를 배우셨나요? 배운 순서에 따라 있는 대로 적어 주세요.

(예, (1) 영어 (2) 프랑스어 (3) 스페인어 (4) 중국어)

(1) (2) (3) (4) (5)

3. 영어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요?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4. 지금까지 영어를 배운 기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약(년 개월)

5. 영어 공인 성적(Teps, Toefl, Toeic, 등)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점수와 함께 있는 대로 적어 주세요.

(1) Teps( )점 (2) Toefl( )점 (3) Toeic( )점 (4) 기타( )점

6. 지난 학기 본인의 영어 내신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7. 프랑스어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요?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8. 지금까지 프랑스어를 배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약(년 개월)

9. 프랑스어 공인 성적(Delf, Dalf, TCF등)이 있으신가요? 등급과 함께 적어 주세요.

(1) Delf (　　) (2) Dalf (　　) (3) TCF (　　) (4) 기타 (　　)

10. 지난 학기 자신의 프랑스어 내신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프랑스어 학습과 이전 영어 학습의 관계 조사》

11.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데 이전의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상관이 없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영어가 도움이 되었다면 프랑스어 학습의 어떤 시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 프랑스어 초급 단계에서　☐ 프랑스어 중급 단계에서
☐ 프랑스어 고급 단계에서

13. 영어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영역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 문법　☐ 어휘　☐ 발음　☐ 듣기　☐ 말하기　☐ 쓰기
☐ 문화　☐ 기타(　　)

14. 다음은 프랑스어 학습과 영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세요.

14-1. 프랑스어와 영어가 비슷한 어휘나 문법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한 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상관없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4-2. 프랑스어 학습도 외국어 학습이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하는 동안 익혔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 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상관없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4-3. 영어가 가장 최근 배운 외국어이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하거나 쓸 때 영어를 자주 참고하게 된다.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상관없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4-4. 기타 프랑스어 학습에 영어 학습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15.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프랑스어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상관없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6.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프랑스어를 영어와 관련지어(어휘, 문법 등)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 많다 ☐ 약간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16-1. 16번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 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상관이 없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프랑스어 학습과 이전 한국어 학습의 관계 조사》

17.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이전의 한국어 학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상관이 없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 한국어가 도움이 된다면 프랑스어 학습의 어떤 시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 프랑스어 초급 단계에서 ☐ 프랑스어 중급 단계에서
☐ 프랑스어 고급 단계에서

19. 한국어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법 ☐ 어휘 ☐ 발음 ☐ 듣기 ☐ 말하기 ☐ 쓰기
☐ 문화 ☐ 기타( )

20. 다음은 프랑스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세요.

20-1. 한국어에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고 유사한 문법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상관없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20-2. 한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습방법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상관없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20-3.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하거나 쓸 때 한국어를 참고하게 된다.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상관없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20-4. 기타 프랑스어 학습에 한국어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21. 한국어를 잘하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프랑스어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상관없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22.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프랑스어를 한국어와 관련지어(어휘, 문법 등)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 많다 ☐ 약간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22-1. 22번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 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상관이 없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ésumé>

Étude sur l'acquisition du français comme L3

IM Youngsoon

Maîtrise en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e développement du transport et la circulation facile des personnes fait que le plurilinguisme est un phénomène très fréquent. La définition d'une troisième langue(L3) s'applique à la langue qu'un individu apprend troisièmement ou à toute langue qu'un individu apprend avec des connaissances préalables dans une ou plusieurs langues secondes(L2) en plus de celles d'une ou plusieurs langues premières(L1). Selon beaucoup de chercheurs, l'acquisition de la L2 se distingue de celle de la L3. L'apprenant d'une L2 possède deux systèmes(L1-L2) susceptibles d' influencer mutuellement (c'est le cas des phénomènes de transfert), mais en ce qui concerne la L3, deux autres rapports bidirectionnels(L1-L3, L2-L3) peuvent intervenir (c'est le cas des phénomènes d'influence translinguistique). Dans le processus de production en L3, les apprenants ont tendance à activer différentes langues déjà acquises dans des rôles différents. Le facteur décisif qui conditionne le degré relatif d'activation des langues premières et secondes dans la production en L3 varie selon le contexte

d'apprentissage ou l'historique langagier. Mais parmi des facteurs comme l'actualité, la compétence, le statut de L2, la typologie, l'âge de l'apprentissage, l'attitude émotionnelle, etc, il est généralement admis que la typologie joue le rôle le plus important déterminant le choix d'une langue spécifique comme langue source.

Les apprenants concernés sont des lycéens coréens de français qui ont déjà acquis l'anglais. Cette étude a pour but de découvrir l'influence de l'acquisition de l'anglais(L2) sur le processus d'acquisition du français(L3) et de suggérer un modèle de cours de français qui concerne leur interaction. Pour cela, une méthode de recherche objective-analyse des notes et une méthode de recherche subjective-enquête ont été utilisées.

Nous avons pu obtenir les résultats suivants :

1. L'apprentissage du français et celui de l'anglais montrent une relation très étroite et s'influencent l'un l'autre positivement.

2. Les élèves sont bien conscients des ressemblances linguistiques entre les deux langues. Et ils exploitent les connaissances en L2 et les stratégies d'apprentissage basées sur leur propre expérience en L2 lorsqu'ils acquièrent la L3.

3. Plus l'élève est exposé au type de cours de français en considération de l'anglais, plus l'apprentissage du français est facile et efficace.

Sur la base de ces résultats, les professeurs coréens de français peuvent construire un cours de français plus économique et utile s'ils font un manuel avec du vocabulaire ayant de hautes possibilités de transfert de l'anglais et sensibilisent les élèves à des traits de ressemblances entre le français et l'anglais.

Mots-clés

plurilinguisme
acquisition d'une L3
langue source
transfert
influence translinguistique
stratégie d'apprentissage